법무부

더 활력 넘치고 행복한 직장을 위한

법무부 교정본부

# 마음나래 프로그램

## 마음나래 프로그램이란?

교정공무원의 심리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마음의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건강한 마음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보세요!

## 프로그램 이용안내

이용대상 I 전 교정공무원 및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가족상담 진행 시, 직원 동반 시에만 가능
이용기간 I 2020년 12월 31일까지
상담주제 I 직무스트레스, 대인관계, 가족관계, 정서문제, 법률/세무상담, 재무상담 등
이용한도 I 대면상담 8회 또는 전화/온라인상담 16회(필요 시, 4회기 추가)

## 신청 및 문의

전용 사이트 I http://maumnarae.co.kr
고 객 센 터 I 1644-4474(평일 AM 9:00 ~ PM 6:00) ※위급상담은 24시간 진행 가능
모바일 APP I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손 안의 마음나래' 검색 후 앱(APP) 다운로드

※ 개인 상담 정보 및 내용은 **비밀보장원칙**에 의거하여 **철저하게 비밀 보장**됩니다.

ezwellness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2020.07 VOL.530

개인과 조직을 변화시키는 힘:
자신만의 승부수를 던져라!

# 매力

9 772671 930009 07
ISSN 2671-9304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 교정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2020.07

7월호 〈교정〉의 테마는 '매력'입니다. 매력은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힘입니다. Manner makes Man! 사회적 매너를 높이고 싶을 때 자신만의 승부수를 던져 보세요.

QR코드를 인식하면 월간 〈교정〉 참여 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참여코너 신청과 독자 의견 송부가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교정 2020년 7월호**(통권 530호) 64권 7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하나로애드컴 02)3443-8005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에서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유튜브 주소**
www.youtube.com/교도소24시
**웹진 주소**
http://cowebzine.com/

페이스북과 유튜브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하실 수 있습니다.

## 마음을 잇다

**04**
**퇴임사**

**06**
**인트로**
매력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힘

**08**
**테마**
매력지수 높이기

**10**
**피플**
이미지 컨설턴트 정연아

**14**
**포커스**
제4의 자본, 매력

## 희망을 짓다

**18**
**소원을 말해봐**
한 여름의 밤의 꿈, 카라반 여행

**22**
**즐거운 쉼표**
3가지 키워드로 즐기는
여름 부산 여행

## 내일을 열다

**26**
**힐링타임**
매력은 발견입니다

**28**
**심리학 열전**
나의 성격, 다시 들여다보기

**30**
**보라미, 보드미와 함께**

**32**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교정공무원의 고민상담소

**34**
**맛남의 교정**
냉라면 레시피

**36**
**방구석 1열**
〈검은 사제들〉 Vs. 〈사자〉

**38**
**헬시라이프**
생활 속에서 흔히 느끼는 어깨 통증

**40**
**트렌드 이슈**
자기만족과 자기과시의 공존, 플렉스

**44**
**전국 교정인 자랑**
아직도 꿈꾸는 교도관

**46**
**희망의 백일장**
빨래

**48**
**교정은 지금**

**50**
**교정리포트**

**56**
**본부소식&일선기관 소식**

**63**
**모범공무원**

**64**
**칭찬합시다**

**65**
**가로세로 퀴즈**

**알립니다**

이번호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교정이 쏜다'와 '열린 교정'은 쉬어갑니다.

#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법무부 교정본부장 최강주

## 저는 오늘 여러분과 동고동락한 교정현장을 떠납니다.

1989년 6월 교도관으로 첫 발을 내 딛은 후, 일선기관, 지방교정청, 교정본부에서 근무한 31년간의 길고도 짧았던 제 공직생활은 커다란 보람이었고 참으로 행복하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부족한 제가 오늘 이처럼 퇴임하게 된 것은 선배들의 따뜻한 보살핌과 동료들의 격려 그리고 후배들의 지지와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랑하고 존경하는 교정가족 여러분!

저는 처음 취임사에서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는 공동운명체'라는 의미의 "동주공제(同舟共濟)"를 강조하면서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험한 파도를 헤쳐 나가자고 하였고 재임기간 중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시설 증개축과 가석방 확대,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통한 분류센터와 심리치료과 설치, 교정공무원 승진제도 개선, 교도작업 활성화를 위한 교정작품 인터넷 쇼핑몰 개설,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교정장비 개선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지만, 검사조사 시 호송방법 개선,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교정시설 조성,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사업, 교정기관 대체복무제도 운영체계 마련 등 시작은 하였으나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도 많아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남습니다.
못다한 일들은 후배 여러분들이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잘 마무리 하여 더욱 혁신하고 발전하는 교정을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정행정은 놀랄만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이는 일선현장에서 묵묵히 맡은바 소임을 다 해주신 1만 6천여 교도관의 헌신과 의지의 결과이며,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로 뭉쳐 헤쳐 나가는 교정문화에서 기인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후배 여러분들은 현재의 변화와 발전을 기반으로,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 수용자 인권보호라는 목표를 상기하면서 국민으로부터 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교정행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정행정에는 수많은 난관과 도전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노련한 선장이 세찬 풍파를 헤쳐 나가듯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신임 교정본부장을 정점으로 일치단결하여 어떠한 변화와 개혁의 물결 속에서도 우리 교정행정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리라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성원으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앞으로 신임 교정본부장에게도 믿음과 신뢰를 보내 주셔서 교정행정이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 뜨거운 가슴으로 함께 했던 교정가족 여러분!

제가 떠나도 달라지지 않는 한 가지는 저는 영원한 교도관이라는 사실입니다. 교정현장을 떠나더라도 언제나 마음만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끝으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동안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을 텐데 제가 수긍할 만큼 사과를 못하였거나 알지도 못하고 지나쳤다면 이 시간 진심을 다해 사과드리며 저의 불찰과 부족함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저와 뜻을 같이하여,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제가 맡은 바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 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25
법무부 교정본부장 최강주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힘

# 매력

매력(魅力)=魅(도깨비 매)+力(힘 력).
매력에는 누군가를 미혹시키거나 홀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도깨비처럼 사람을 홀리는 힘이라는 거지요.

상대방에게서 매력을 느꼈을 때 당신은 어떤 감정을 갖게 되나요?
부러움을 느꼈나요, 행복함을 느꼈나요?
상대방에게서 매력을 느꼈다면 당신은 분명 행복함, 저절로 기분이 좋아져야 마땅합니다.
지금 바로 당신이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누군가, 이를 테면 박보검? 송혜교? 전지현?
그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면 금방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매력을 시샘하지 않잖아요. 누군가를 생각하고 저절로 기분 좋아지는 느낌.
그것이 매력의 힘입니다.
그러니 매력을 높이는 법을 사람을 홀리는 법으로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매력의 진짜 힘은
나를 빛나게 하는 힘입니다. 스스로 빛나려면 자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지요.
자신을 충분히 믿고 존중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누군가를 홀리게 하려 하지 말고 스스로
반짝일 수 있도록.

글 편집실

## 매력지수 높이기

# 당신 참 매력있어요

첫눈에 확 끌렸다가 금방 질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범해 보였는데 볼수록 진국인 사람이 있다. 어떤 쪽이 더 매력적인 사람일까. 후자에 더 큰 점수를 주고 싶다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매력은 알려져 있듯이 타고난 것이 아니라 개인의 노력으로 갈고 닦은 것이라는 사실을.

**매력의 핵심은 자기긍정**

옷 잘 입는 사람이 부럽다. 뭘 입어도 태가 나는 건 타고 난 걸까. 도대체 옷을 잘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패션 공부부터 시작해야 하나, 학원에 다녀야 하나? 한 유명 패션 디자이너는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추구하고 좋아하는 걸 계~속 입으세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 모습이 자연스러워 보일 때까지."

'뭘 고민해, 당신 좋아하는 걸 입으면 되는 거지'라는 뜻이다. 뭐 이리 싱거운 말이 다 있나 싶지만 실제로 반박할 수 없는 예들이 상당히 많다. 이제는 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나 마이클 잭슨 같은 이들을 떠올려 보자. 한국의 앙드레 김도 비슷한 인물이다. 그들의 패션이 뭐 그리 대단했나. 청바지에 검은색 폴라티 차림을 고수했던 스티브 잡스,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호한 스타일로 평생을 살았던 마이클 잭슨, 올백 스타일을 고수했던 앙드레 김. 쉽사리 따라하기 힘든 스타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고인이 된 그들을 떠올릴 때마다 '아~ 그 사람, 그 패션'하고 떠올릴 만큼 일관된 자기 스타일을 지닌 인물들이었다. 그들의 일관적인 스타일은 그 패션을 따라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큰 매력을 만들어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한 자신감이 에너지를 만들고 긍정의 효과를 전파한다. 매력의 가장 큰 핵심은 자신감을 통한 자기긍정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한 에너지 표출이다.

이효리의 매력도 자기긍정에 의한 높은 자존감에서 발견할 수 있다. 주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나 이효리야' 이 한 문장이 많은 것을 설명한다. 어디 가서 이런 말 하기 쉽지 않다. '뭐야 재, 왜 나대'라는 비웃음이 돌아오기 십상이다. 누구든지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선 큰 용기와 자신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 자신이 이룬 성공에 대해 그것이 아무리 보잘 것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굳이 겸손해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자기 자신에 대해 충분히 괜찮다고 여긴다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행위이자 나를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선택이다.

**매력은 품격의 동의어, 말 속에 드러난 품격**

매력적인 사람들은 예의범절이 확실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매력 있는 사람은 품격이 있다는 뜻이다. 항상 주위 사람에게 배려와 존중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 인기가 곧 인간관계와 비즈니스 성공의 원천이 된다. 자신의 능력을 가장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매력이다. 그 안에 성공의 열쇠가 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데 실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면 시쳇말로 '깨는' 사람들이 있다. 이는 말주변이 없어서가 아니다. 화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이런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보통은~', '~ 때문에', '고작~', '왜~' 등과 같은 말을 쓴다. 말하는 사람의 선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관심법을 쓰지 않는 한 상대방이 알 수 없겠으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상대를 무시하는 듯한 말투들이다.

'보통은~'은 자기만의 기준을 세워서 '보통은 ~ 해야 해.'라고 단정 짓는 말투이며, '~때문에'는 상대를 탓하는 말투이다. 그리고 '고작~'은 불만에 가득 차서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투이며, '왜~'는 꼬치꼬치 따지는 말투다. 이런 말투를 자주 하면 상대가 기분이 좋을 리 없다.

'보통은'과 같은 화자의 일방적인 기준을 철회하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처럼 상대방의 다름을 인정하는 말투로 대화를 시작하면 훨씬 더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다.

항상 주위 사람에게 배려와 존중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 인기가 곧 인간관계와 비즈니스 성공의 원천이 된다.
자신의 능력을 가장 최상으로 끌어올리는 힘이 매력이다.

이처럼 평소의 말하는 습관이 매력을 좌우한다. 스탠포드 대학의 캐럴 드웍 심리학 교수는 사람들이 성공의 본질을 보는 근본 관점에 따라 칭찬과 비판을 달리 해석한다는 점을 발견했다.

난관에 부딪쳤을 때, 닫힌 마음의 사람은 "안돼"라고 생각하지만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노력하면 해낼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 닫힌 마음인가, 열린 마음인가에 따라 태도는 물론, 실제 성과를 좌우한다. 특히 조직에서 리더의 한마디 한마디는 구성원들의 사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잘 해낼 수 있어요.", "내가 잘 되게 도와줄께요."라는 말을 건네는 리더가 "도대체 왜 그것밖에 못하느냐?"라는 말을 건네는 리더보다 매력적인 동시에 영향력이 크다.

미국 하와이대 심리학과 교수인 일레인 햇필드(Elaine Hatfield)는 저서인 〈정서적 전염(Emotional Contagion)〉에서 다른 사람의 말과 표정, 자세, 몸짓을 자기도 모르게 따라하는 현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누군가가 웃음을 짓거나 행복감을 드러낼 때 나도 모르게 그 사람처럼 웃고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매력은 전염된다는 뜻이다.

글 하은 사진 김도형

# 웃는 얼굴이 당신을 매력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

## 이미지 컨설턴트 정연아

'볼매'라는 말을 아는가? '볼매'는 '볼수록 매력 있다'는 뜻이다. 당신은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가? 어떻게 하면 '매력 있는' 사람이 되는가? 국내 최초로 이미지 컨설팅을 한 이가 정연아 대표다. 현재 '정연아 이미지테크'를 운영하며 국내 1호 이미지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정연아 대표를 만나 '매력'의 모든 것과 교정인이 가진 매력을 잘 드러내기 위한 조언을 들었다.

누구나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한다. 타고난 외모나 목소리, 성격 등은 좀처럼 바꾸기 어렵지만 '매력'은 본인의 관심과 열정에 따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이미지 컨설팅'이라는 말 자체가 생소했던 90년대 초반 '이미지 컨설팅' 개념을 제시해 주목받은 정연아 대표는 30여 년간 이미지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 후보를 비롯해 정치인, 기업인 등의 이미지 컨설팅을 담당하였고 강연, 저술활동, 후배 양성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도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연아 대표는 "매력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끌리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정 대표는 지금까지 '사람의 마음을 읽고 그 사람의 내재된 매력을 이끌어내는 일'을 해왔다.

"매력은 눈에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상대방의 감정과 태도를 조절하는 엄청난 힘을 가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매력은 사람 사이를 강력하게 이어주는 매개입니다."

### 외모 지상주의 대신 매력 지상주의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심리학자 대니얼 카너먼은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조건은 지능이나 학벌, 운이 아니라 매력"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매력 있는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할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미지 컨설팅을 해 왔는데, 이는 결국 매력을 만들어주는 작업입니다.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매력을 끄집어내어 발산시키는 작업인 것이죠. 그들은 매력적으로 변한 자신의 이미지에 감동하고 무척 만족해했습니다. 매력은 이미지 변신뿐 아니라 내적 성숙과 경쟁력 향상에도 시너지 효과를 줍니다."

정연아 대표는 "매력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발판이 된다"면서 "외모 지상주의가 아닌, 매력 지상주의가 되어 스스로 경쟁력을 키워나가자"고 힘주어 말했다.

첫인상은 시각적인 외모에서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러나 첫인상이 그 사람을 다 규정하진 못 한다.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접한 후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매력이 있는 사람과 매력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

"끌리는 사람과 끌리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다양한 요소로 결정됩니다. 먼저 외모, 화장, 패션, 자세 등 시각적 요소가 크고, 목소리에 호감을 느끼는 청각적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몸짓, 표정, 태도(매너) 등의 행동적 요소, 그리고 말(스피치) 등의 언어적 요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를 종합해 그 사람의 언행이 바른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등을 평가하면서 매력이 있고 없고를 느낍니다."

**교정공무원, 상대방 헤아리는 따뜻한 리더십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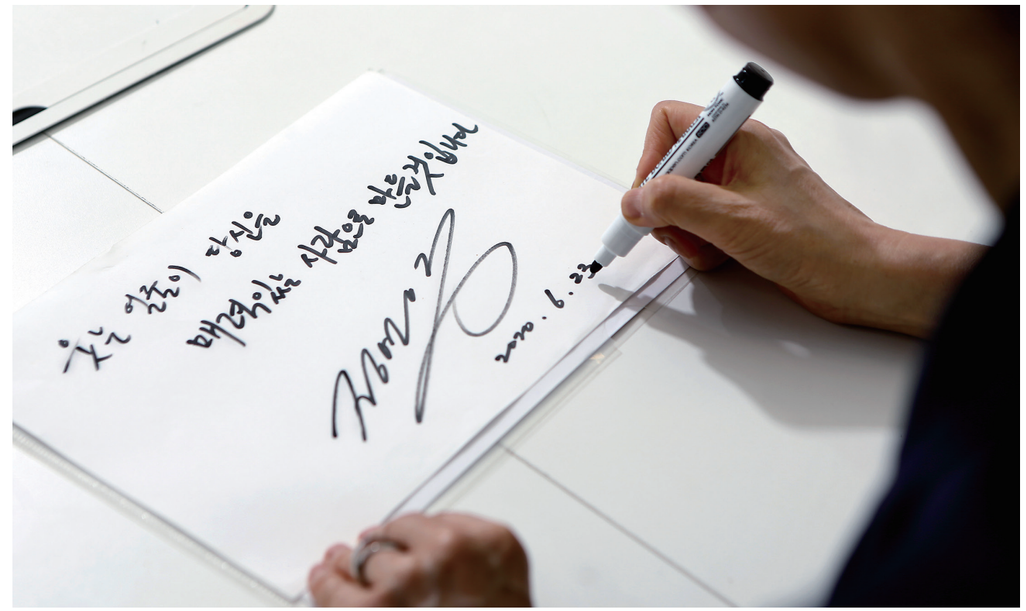
정연아 대표는 "일반적으로 '교도관'이라고 하면 딱딱하고 어두운 이미지가 있는데, 교정공무원들이 이러한 인상을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이미지 변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밝은 표정에서 대화를 이끌어내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차분한 목소리와 말투, 미소 짓는 표정은
서로의 관계를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채워줍니다."

"우리가 꼭 말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정이나 몸짓으로도 무언의 소통이 됩니다. 교정공무원에게 권하는 방식은 말보다 표정입니다. 누군가와 부드럽게 소통하기 위해서 밝은 표정이 필요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여는 것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미소를 짓는 것, 살짝 웃는 것입니다. 밝은 표정에서 대화를 이끌어내고, 자신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차분한 목소리와 말투, 미소 짓는 표정은 서로의 관계를 따뜻함과 부드러움으로 채워준다고 말하는 정연아 대표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주었다.

"말할 때, 말의 끝을 살짝 늘리면 더 부드러운 느낌을 줍니다.



"말투, 눈빛, 표정 하나에서 그 사람의 성향과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 간에
소통하고 교류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갖다 줘'가 아니라 '갖다 줄래'하면서 '래'자를 길게 말하는 것이죠. 내 가족에게 말하듯 부드럽게, 내 자녀를 바라보듯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투, 눈빛, 표정 하나에서 그 사람의 성향과 매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 간에 소통하고 교류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 잘 하는 사람이 매력적**

교정공무원이 이성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정연아 대표에게 이미지 컨설팅을 부탁했다. 정 대표는 "미혼이라면 자신에게 맞는 이성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이성에게는 태도를 다르게 해야 한다"고 말한다. "처음 만난 이성 앞에서 마냥 미소 짓고 웃는다면 상대는 불필요한 오해를 하게 됩니다. 표정과 인상, 행동은 때와 장소, 상황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진심을 상대에게 전달하려면 꾸미지 않는 자연스러움으로 따뜻한 느낌을 주어야 합니다."

정 대표는 "첫 이미지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한데, 행동이 너무 과해도 그렇다고 너무 소극적인 태도도 좋지 않다."고 말한다. 누구를 만나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충분히 배려한 후 말을 내뱉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지요. 교정공무원이 누구를 만나더라도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진정성 있게 느껴졌는지, 진심이 잘 전달되었는지를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행동에 진중함이 있어야 상대방에게 매력 있는 사람으로 비쳐지고, 서로 간에 소통도 원활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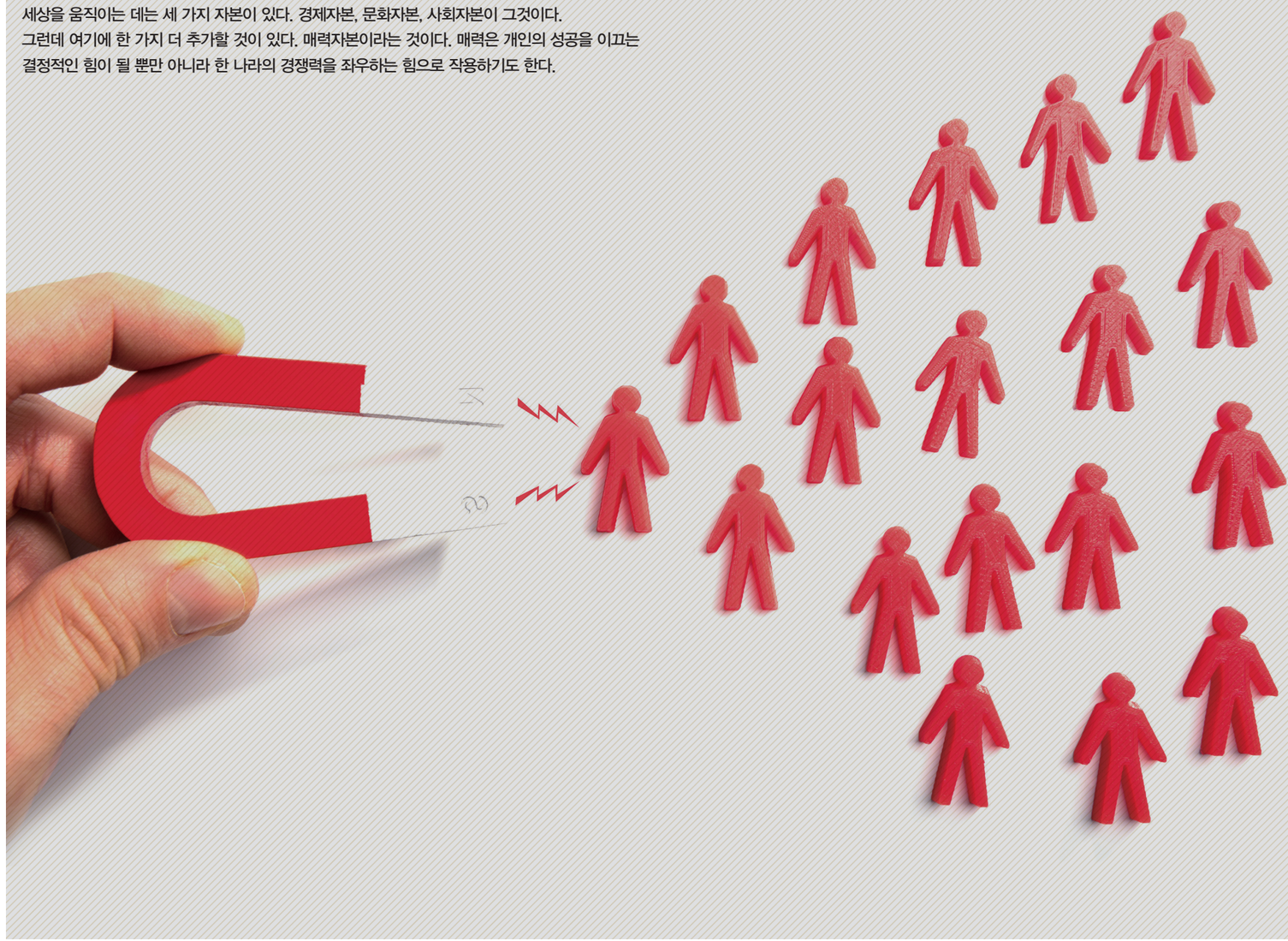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정연아 대표는 밤낮 없이 수고하는 교정공무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더위까지 기승을 부리는 여름에는 땀도 많이 나고 노고가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전국의 교정공무원들, 우리 국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글 편집실

# 제4의 자본, 매력 세상을 움직이는 새로운 힘이 될까

세상을 움직이는 데는 세 가지 자본이 있다.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이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할 것이 있다. 매력자본이라는 것이다. 매력은 개인의 성공을 이끄는 결정적인 힘이 될 뿐만 아니라 한 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 매력자본 그리고 벨르 레이드(belle laide)

외적 매력을 높이려는 노력은 지금껏 종종 경멸의 대상이 되곤 했고 지식을 쌓거나 내적인 역량을 쌓는 일보다 한 수 아래로 취급하기 일쑤였다. 실력보다 외모로 경쟁하려 한다고 오해하는 일도 잦다. 때로는 '외모 지상주의'라며 비판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실력이 비슷할 때 매력은 매우 유리한 장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이 이런 정서를 설명하고 있다. 이왕이면 모양 좋고 보기 좋은 것을 택한다는 우리 속담이다. 다만 도덕적, 사회적 관념에 따라 차마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적한 이가 없을 뿐이다.

매력을 '자본'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런던 정치경제대학 사회학과 교수이자, 현재 정책연구센터 내 연구위원인 캐서린 하킴이다. 자신이 연구한 이론을 '매력자본(Erotic Capital)'이라는 책으로 펴냈다. 여기서 매력을 제4의 자본으로 꼽았다. 캐서린 교수는 외모, 몸매, 패션 등과 같이 사람을 매력적인 존재로 만드는 모든 자원을 일컬어 '매력자본'이라고 명명했다. 앞서, 프랑스의 사회학자 피에르 부르디외는 자본의 종류를 경제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등 세 가지를 꼽았는데 캐서린 교수는 제4의 자본으로 매력을 제시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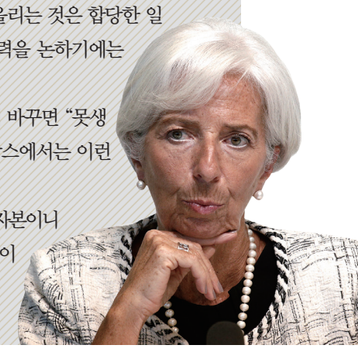
"몸매 유지가 충분히 잠을 자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 말이 글로벌 여성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발언이라면 믿을 수 있을까. 실제로 그녀는 매우 매력적인 외모를 지녔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결하느라 동분서주하는 라가르드 총재가 잠을 포기할 정도로 몸매 관리에 신경 쓰는 까닭은 무엇일까? 하킴은 라가르드 총재가 매력자본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돈을 뜻하는 '경제적 자본', 인맥을 뜻하는 '인적 자본', 지식이나 교양을 뜻하는 '문화적 자본'처럼 사람이 가진 외모와 스타일, 쾌활한 분위기 등도 자본이 되어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력은 과연 무엇일까 다시 생각하게 된다. 그저 눈의 구멍이 남들보다 좀 더 크게 뚫려 있거나 코가 남들보다 더 많이 융기되어 있는 얼굴을 보며 '매력'을 떠올리는 것은 합당한 일일까. 남들보다 예쁘다거나 잘 생겼다는 평가는 받을 수 있겠으나 매력을 논하기에는 부족한 조건이다.

프랑스에선 '벨르 레이드'(belle laide)라는 말이 있다. 우리말로 거칠게 바꾸면 "못생겼지만 예쁘다"는 정도의 뜻을 담고 있다. 형용모순의 표현이지만 프랑스에서는 이런 말이 통용된다고 한다. 미인은 아니지만 매력적이라는 뜻이다.

돈과 재능, 인맥 못지않게 중요해서 '제4의 자본'으로 불리는 매력. 매력도 자본이니 매력이 크면 확실히 남들보다 빠른 성공을 보장할 수 있다. 그러나 '벨르 레이드'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매력자본은 외모 지상주의와는 차이가 있다.



# 매력을 자본으로 성공을 거둔 사람들

2002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행동경제학의 창시자인 대니얼 카너먼 교수(프린스턴 대학)는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 조건은 지능이나, 학벌, 운이 아니라 매력이다"라고 했다. 카너먼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해 줄 사례는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40대의 젊은 나이에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쓴 버락 오바마도 능력이 출중해서 대통령이 된 것은 아니다. 오바마가 취임 100일 넘겼을 때 미국의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는 '오바마는 미국 최초의 힙(hip)한 대통령'이라고 보도했다. 대체로 '힙'하다는 말에는 모방심리를 자극할 만큼 '매력적'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었으니 가능한 성공이었다는 뜻일 것이다.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매력자본으로 성공한 인물로 손꼽힌다. 오스트리아 출신인 그는 영어 발음이 어눌했고 얼굴도 할리우드의 꽃미남들에 비하면 우락부락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극복해야 할 핸디캡으로 여기는 대신 '매력적인 발음', '매력적인 얼굴'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현재 70대의 나이에도 할리우드에서 액션배우로 맹활약하며 노익장을 과시할 수 있는 것도 그의 남다른 매력 덕분이다.

매력은 타고난 아름다움에 좌우되는 힘은 아니다. 캐나다 출신의 모델 위니 할로우를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그녀는 백반증 환자이다. 입술 주위는 물론이고 팔다리 등 피부 곳곳의 피부색이 하얗게 변해 얼룩덜룩하다. 이런 외모 때문에 학창시절에는 괴물이니 얼룩말이니 하는 놀림을 수없이 당했고 친구들의 따돌림으로 전학을 여러 차례 한 끝에 결국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말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위니 할로우가 모델로 성공한 데는 백반증으로 인해 얻은 독특한 외모가 영향을 미쳤다. 데뷔 당시 '외모가 지나치게 특이하다' 등의 혹평들도 있었지만 할로우는 오히려 한번 본 사람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점을 자신의 매력으로 삼아 세계적인 모델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했다.

# 새로운 국가경쟁력, 국민매력총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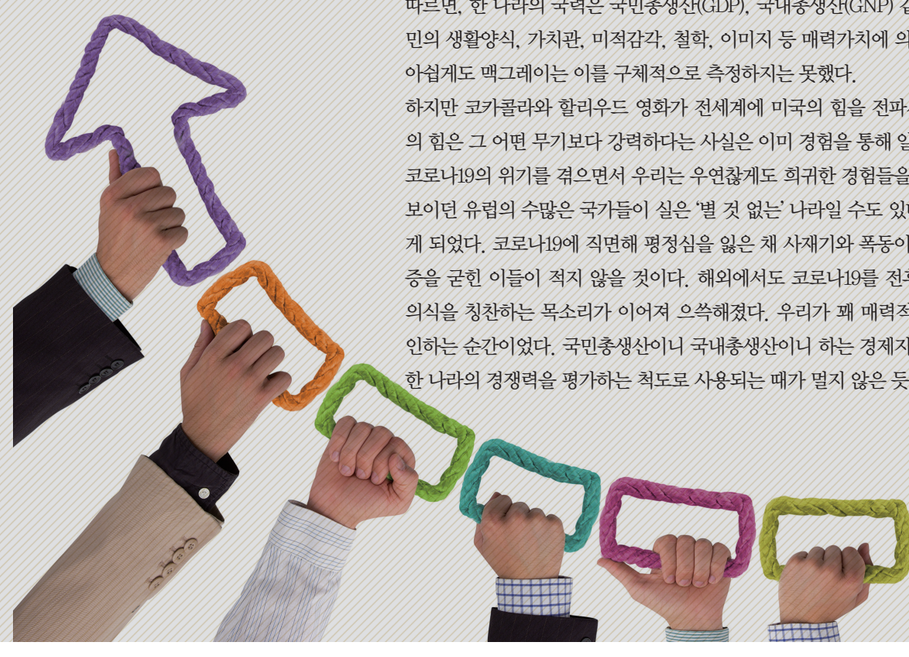
매력에 관한 재미있는 실험결과가 있다. 미국에서 수용자를 상대로 창의적인 실험을 실시한 적이 있다. 마약 중독자는 아니지만 인상이 험악한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석방되자마자 성형수술을 받도록 했다. 심리적인 적응력과 취업 성공률을 높이고 상습적인 재수감을 줄이려는 목적이었다. 1년 뒤 성형수술을 받은 집단의 재수감 비율은 아무런 시술도 받지 않은 사나운 인상의 재소자 집단에 비해 36%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력을 자본으로 가질 경우 범죄율도 떨어진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매력의 힘은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힘이 아니다. 21세기 들어 부상하고 있는 기업과 나라를 보면 대개 매력을 높이기 위한 방향을 추구하고 있다. 미래학자 더글러스 맥그레이는 21세기 국가경쟁력은 국민총매력지수(GNC, Gross National Cool)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국민총매력지수라는 말은 그가 2002년 외교잡지 포린 폴리시 매거진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이다. 한 나라가 얼마나 매력적(cool)인지를 계량화하는 시도를 했다. GNC를 주장한 맥그레이에 따르면, 한 나라의 국력은 국민총생산(GDP), 국내총생산(GNP) 같은 경제적 가치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양식, 가치관, 미적감각, 철학, 이미지 등 매력가치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이었으나 아쉽게도 맥그레이는 이를 구체적으로 측정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코카콜라와 할리우드 영화가 전세계에 미국의 힘을 전파시킨 데서도 알 수 있듯이 매력의 힘은 그 어떤 무기보다 강력하다는 사실은 이미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우연찮게도 희귀한 경험들을 많이 했다. 그토록 매력적으로 보이던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이 실은 '별 것 없는' 나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깨닫게 되었다. 코로나19에 직면해 평정심을 잃은 채 사재기와 폭동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그런 심증을 굳힌 이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해외에서도 코로나19를 전후하여 한국인들이 보여준 시민의식을 칭찬하는 목소리가 이어져 으쓱해졌다. 우리가 꽤 매력적인 국민이고 나라임을 새삼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국민총생산이니 국내총생산이니 하는 경제지수를 대신해 국민총매력지수가 한 나라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척도로 사용되는 때가 멀지 않은 듯하다.



글 양지예 사진 김도형

좌측부터 김수현 교사, 민정환 교사, 전두민 교위



# 한여름 밤의 꿈, 카라반 여행

포항교도소 교위 전두민

캠핑의 계절이 돌아왔다. 포항교도소 복지과 전두민 교위도 여름을 맞아 그동안 꿈꿔온 캠핑을 즐기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카라반 여행을 떠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마음을 펴고 심신을 힐링하기 위해 오랜만에 나들이에 나선 것이다.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도심에서 벗어나 한적한 자연에서 즐기는 한여름 밤의 꿈같은 카라반 여행을 소개한다.

**코로나19로 지친 마음, 자연 속에서 힐링~!**

탁 트인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구불구불한 해안 둘레길을 달리다보면 저 멀리 아기자기한 카라반이 모습을 드러낸다. 바닷가 절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멋진 풍광을 품고 있는 글램핑장이다. 전두민 교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됐던 마음을 펴고 잠시나마 기분전환을 하기 위해 특별히 동료들과의 캠핑을 준비했다. 아직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북적거리는 관광지 대신 동료들과 조촐하게 즐길 수 있는 캠핑이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더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아울러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바람에 글램핑장에 사람이 많지 않아 더욱 좋은 선택이 됐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동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탁 트인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캠핑을 생각했어요. 특히 카라반 캠핑은 제가 은퇴 후 노후에 가족들과 꼭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오늘 미리 그 로망을 실천해 볼 수 있게 되어서 무척 기대가 되네요."

은퇴 후 꿈을 위해 트레일러 면허까지 딸 정도로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 그이지만, 바쁜 일상 때문에 정작 캠핑 경험은 오늘이 처음이다. 그런 그를 위해 복지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민정환 교사와 캠핑 마니아 김수현 교사가 함께 했다.

"셋이 같은 과에서 일하면서 가까워졌어요. 아무래도 함께 일하다 보니까 협조하고 소통할 부분이 많아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지금은 김수현 교사가 보안과로 갔지만 여전히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셋 다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다 보니 작년부터 캠핑 한 번 오자고 말은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함께 오게 돼서 정말 즐겁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해서 더 즐거운 카라반 여행**

전두민 교위는 오늘 하룻밤을 묵을 캠핑카를 배정받고 내부를 둘러봤다. 남자 셋이 잠을 자기에는 다소 아담하지만, 침대부터 냉장고, 가스레인지, TV 등 필요한 건 다 갖추고 있는 실속 있는 캠핑카다. 그런데 이게 웬일? 구경이 끝난 후 가져온 짐을 대충 부려놓고 준비해온 각종 식재료와 캠핑용품을 정리하는데 갑자기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다. 갑작스러운 비에 당황한 것도 잠시, 전두민 교위와 민정환 교사는 비 예보를 보고 미리 준비한 타프를 야외테이블에 설치하기로 한다. 업무 때문에 조금 늦게 합류할 예정인 김수현 교사가 도착하지 않아 캠핑초보인 두 사람이 서툰 솜씨로 우왕좌왕 고군분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점점 거세지는 비를 흠뻑 맞으면서도 뭐가 즐거운지 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끊이지 않았다. 내리치는 빗방울과 다소 강한 바람 탓에 타프가 펄럭거리고 번거로운 상황이지만, 인생이 언제나 평탄할 수만은 없듯이 캠핑도 예측 불가능해서 더 재미있는 것 아니겠냐며 웃는 전두민 교위의 얼굴에서 그의 긍정적인 성격을 알 수 있었다.

"제가 여러 가지 체험하는 것을 좋아해요. 직장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매너리즘에 빠져서 몇 년 전부터는 유도, 주짓수 등을 취미로 배우기 시작했어요.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캠핑 같은 아웃도어 활동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직장생활을 더 활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종종 캠핑을 즐기고 싶어요."

**캠핑의 꽃, 맛있는 음식 만들기**

벌써 저녁 6시가 훌쩍 넘은 시각, 야외에서 움직이다보니 평소보다 일찍 배가 출출해졌다. 얼마 뒤 김수현 교사가 합류하자 그들은 본격적으로 저녁 준비에 돌입했다. 오늘 준비한 메뉴는 초밥과 닭볶음탕, 그리고 캠핑의 꽃 바비큐! 그들은 야심찬 요리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 문어, 연어,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등 육해공의 다양한 식재료를 준비했다. 요리를 하기 위해 가장 기본인 불부터 피우려 했지만, 안타깝게도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바람에 숯불을 피우는 대신 휴대용 가스레인지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사실 오늘 화로에 불을 세게 피워서 삼시세끼 콘셉으로 요리를 하고 싶었는데 불을 피울 수 없다니 아쉽네요."

비록 화력 좋은 불 맛은 낼 수는 없지만, 그들은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각자 맡은 요리를 하기 시작했다. 전두민 교위는 닭볶음탕, 민정환 교사는 초밥, 김수현 교사는 스테이크를 만들기로 한다. 전두민 교위는 오늘 캠핑을 주도한 주인공인 만큼, 모든 요리의 레시피를 미리 숙지해 와 동료들을 진두지휘했다. 맛있는 닭볶음탕의 비법은 소주로 닭의 잡내를 잡고, 양념할 때 양파를 최대한 많이 넣어 단 맛을 끌어내는 것. 각종 양념을 계량 없이 눈대중으로 척척 넣는 것이 고수의 향기가 느껴진다. 게다가 민정환 교사가 만드는 초밥의 단촛물 비율까지 알려주며 요리 지식을 뽐내는 걸 보니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닌 모양이다.

"집에서도 가끔 요리를 해요. 초밥은 와이프에게 한 번 해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완벽히 성공하지 못 해서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오늘은 꼭 성공해서 다시 한 번 해주고 싶어요."

양념에 재운 닭을 카라반 안에 마련된 가스레인지에 올려 끓이고, 초밥 위에 올라갈 연어와 문어를 얇게 자르는 동안, 김수현 교사는 한우 스테이크를 프라이팬에 굽기 시작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탓에 불이 자꾸 꺼지는 악조건 속에서도 한우가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간다. 매콤하게 익어가는 닭볶음탕의 향기와 소금과 후추를 솔솔 뿌려 먹음직스러운 스테이크의 지글거리는 소리가 캠핑장 가득 퍼졌나갔다. 드디어 각자 맡은 요리가 완성되고 한 상 가득 음식이 차려졌다. "와 내가 만들었지만 정말 맛있다!" 전두민 교위의 감탄사에 동료들도 음식을 맛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고 하잖아요. 캠핑 같은 아웃도어 활동도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직장생활을 더 활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종종 캠핑을 즐기고 싶어요."

**한 여름 밤의 추억**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밤이 깊어간다. 비록 잔뜩 흐린 날씨 탓에 새파란 동해바다를 볼 수는 없었지만 동료들과 추억을 쌓을 수 있어 그 어느 때보다 즐거운 밤이다.

"원래 제주도에 가서 자전거 종주를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계획이 무산됐어요. 아쉬운 마음에 캠핑을 계획한 건데 동료들과 속 깊은 이야기도 나누고 오히려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후배들과 함께 해서 더 의미 있고, 은퇴 후 계획을 미리 실행해 볼 수 있어서 정말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깊어가는 여름 밤, 맛있는 음식과 사랑하는 동료가 함께하고 운치 있는 빗소리까지 분위기를 더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 오늘 카라반 여행이 전두민 교위의 기억 속에 한여름 밤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길 바란다.

'소원을 말해봐' 코너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독자엽서 또는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로 신청해 주세요. QR코드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선정되신 주인공에게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 드립니다.

글 · 사진 김수진

화끈하게, 쿨하게~
3가지 키워드로 즐기는

# 부산

부산과 여름은 닮았다. 화끈하고 정열적인 에너지가 말이다. 그렇다고 부산은 여름처럼 끓어오르기만 하지 않는다. '쿨한' 면모도 충분히 갖췄다. 바다, 전망, 음식이라는 3가지 시원한 키워드만 기억할 것. 화끈한 여름 부산을 쿨하게 여행할 준비 완료!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부산의 백 가지 바다**

부산은 동해와 남해를 모두 품은 특별한 바다의 도시다. 그만큼 다채로운 바다의 풍경과 매력을 선사한다. 해운대와 광안리 같은 대규모 해수욕장부터 생활 속 거리 두기에 적합한 작은 해변까지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우리나라 대표 도심 해변인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해수욕장은 고층빌딩과 바다가 어우러져 특별한 풍경을 연출한다. 푸른 해송 숲 대신 현대적인 빌딩 숲이 배경을 이루니 전국의 여느 해수욕장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자연과 인간이 만든 작품이 한 공간에서 화려한 합을 이룬다. 파라솔과 야경이 두 해수욕장의 놓칠 수 없는 포인트다. 해운대해수욕장에서는 여름이면 1.5km 백사장에 수천 개의 파라솔이 빼곡하게 늘어서는 진풍경이 펼쳐진다. 알록달록한 해운대 파라솔 행렬은 한국의 피서철 분위기를 대표하는 그림이다. 단 올여름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파라솔을 2m 이상 떨어뜨려 배치한다. 광안리해수욕장은 갈대로 만든 파라솔 덕에 이국적인 휴양지 분위기가 물씬 난다. 어둠이 내리면 해운대와 광안리해수욕장은 하늘의 별 대신 고층빌딩 불빛이 한여름 밤의 낭만을 채운다. 특히 광안리해수욕장은 바다 위를 달리는 총길이 7,420m의 광안대교가 야경의 품격을 높인다. 10만 가지 이상의 색상을 연출한다는 광안대교 경관 조명이 불을 밝히는 해변의 밤은 환상 그 자체다.

자연미가 살아 있는 해변을 찾는다면 갯벌과 습지를 품은 다대포해수욕장을 추천한다. 낙동강 하구에 위치한 다대포해수욕장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 수심이 얕고 수온이 따뜻하다. 또 낙동강에서 실려 온 양질의 모래가 퇴적돼 부드러운 백사장을 이룬다. 몰운대, 생태탐방로, 해변공원 등 다채로운 즐길 거리를 갖췄는데 무엇보다 낙조 명소이자 사진 찍기 좋은 명소로 유명하다. 간조 때면 모래가 물결무늬로 흘러가며 신비로운 흔적을

갈대 파라솔이 있어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나는 광안리해수욕장

남긴다. 바닷물이 얕게 깔린 모래사장 위로 붉은 노을이 물드는 순간 다대포의 아름다움이 최절정에 달한다. 노을빛 하늘이 물 위에 반영되면 하늘과 땅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하늘도 바다도 온통 붉은 빛으로 물드는 황홀경을 맛보게 된다. 다대포는 물 위 반영이 아름다워 종종 세상에서 가장 큰 거울이라 불리는 볼리비아의 우유니 소금사막에 비유되기도 한다. 반영을 사진에 담으려면 미리 물때를 확인하고 방문해야 한다.

부산에는 한적하고 조용한 바다도 많다. 번화한 해운대에서 달맞이고개를 넘어가면 도심 속 어촌마을 청사포가 나타난다. 고층건물 가득한 도심 지척에 아늑한 어촌마을이 남아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질 좋은 미역 생산지이자 일출 명소로 유명한 청사포. 지금도 포구에 고기잡이배가 드나든다. 나란히 마주한 빨간색, 하얀색 쌍둥이 등대는 청사포 풍경을 완성하는 최고의 포토존이다. 등대 모양을 한 청사포 감성버스정류장과 바다 위에 우뚝 솟은 청사포다릿돌전망대가 볼거리를 더한다.

**Tip**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7월 1일부터 해수욕장의 붐비는 정도를 미리 알려주는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해수욕장별로 적정 인원이면 초록색, 200%가 많으면 노란색, 200%를 초과하면 빨간색 불이 켜진다. 부산 해운대, 광안리해수욕장 등도 미리 혼잡도를 확인하고 방문할 수 있다. seantour.com

### 부산에서만 만나는 독특한 전망

부산은 바다의 도시인 동시에 산지가 많은 도시다. 한국전쟁 당시 피란수도였던 부산으로 많은 사람이 몰려들면서 산비탈에 집을 짓고 지내기 시작했다. 산비탈에 형성된 동네는 부산만의 이색적인 풍경으로 자리 잡았고 대표적인 예인 감천문화마을, 초량이바구길 등은 부산 인기 관광 명소가 됐다. '한국의 마추픽추'라고도 불리는 감천문화마을은 산자락을 따라 파스텔 톤의 주택이 계단식으로 들어선 독특한 형세를 보여준다. 마을 전망대인 하늘마루에 오르면 산과 바다에 둘러싸인 감천문화마을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한국 현대사의 한 단면을 고스란히 담은 풍경은 아프고도 아름답다. 역사적인 마을 곳곳에 예술 작품을 설치해 가치를 살렸다. 최고 인기 포토존인 '어린왕자' 조형물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골목과 계단으로 미로처럼 이어지는 동네 안을 걸어보자. 어디로 가든 막힘 없이 모두 통하게 만든 골목길이 신기하다. 앞집이 뒷집을 가로막는 법 없이 배려하며 공존하는 마을 모습이 감동적이다. 마을 아래와 위를 잇는 148계단을 오르며 어려웠던 시절을 이겨낸 근현대사 속 우리를 만나본다.

등대가 있어 더 아름다운 어촌마을 청사포

파스텔 톤 건물이 산비탈을 따라 늘어선 형세가 인상적인 감천문화마을

부산의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168계단

어린왕자가 내다보는 감천문화마을 야경

부산에 가면, 밀면 한 그릇

같은 역사 속 초량동에는 168계단이 있다. 계단 수 168개, 경사도 45도의 아찔하고도 힘든 계단이다. 다행히 지금은 168계단 옆에 모노레일이 운행 중이다. 마을 주민과 관광객 누구나 모노레일을 타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됐다. 모노레일을 타고 계단 맨 위까지 올라가면 전망대에서 부산항과 시가지를 시원하게 내다볼 수 있다. 낮에 보는 전망도 훌륭하지만 부산항대교가 불을 밝히는 야경이 근사하다. 168계단은 부산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초량이바구길에 속한다. 초량이바구길 코스에는 부산 최초의 근대식 개인 종합병원인 구 백제병원(국가등록문화재 647호), 부산 최초의 창고였던 남선창고 터, 가곡 〈기다리는 마음〉으로 유명한 시인 김민부를 기리는 김민부전망대 등이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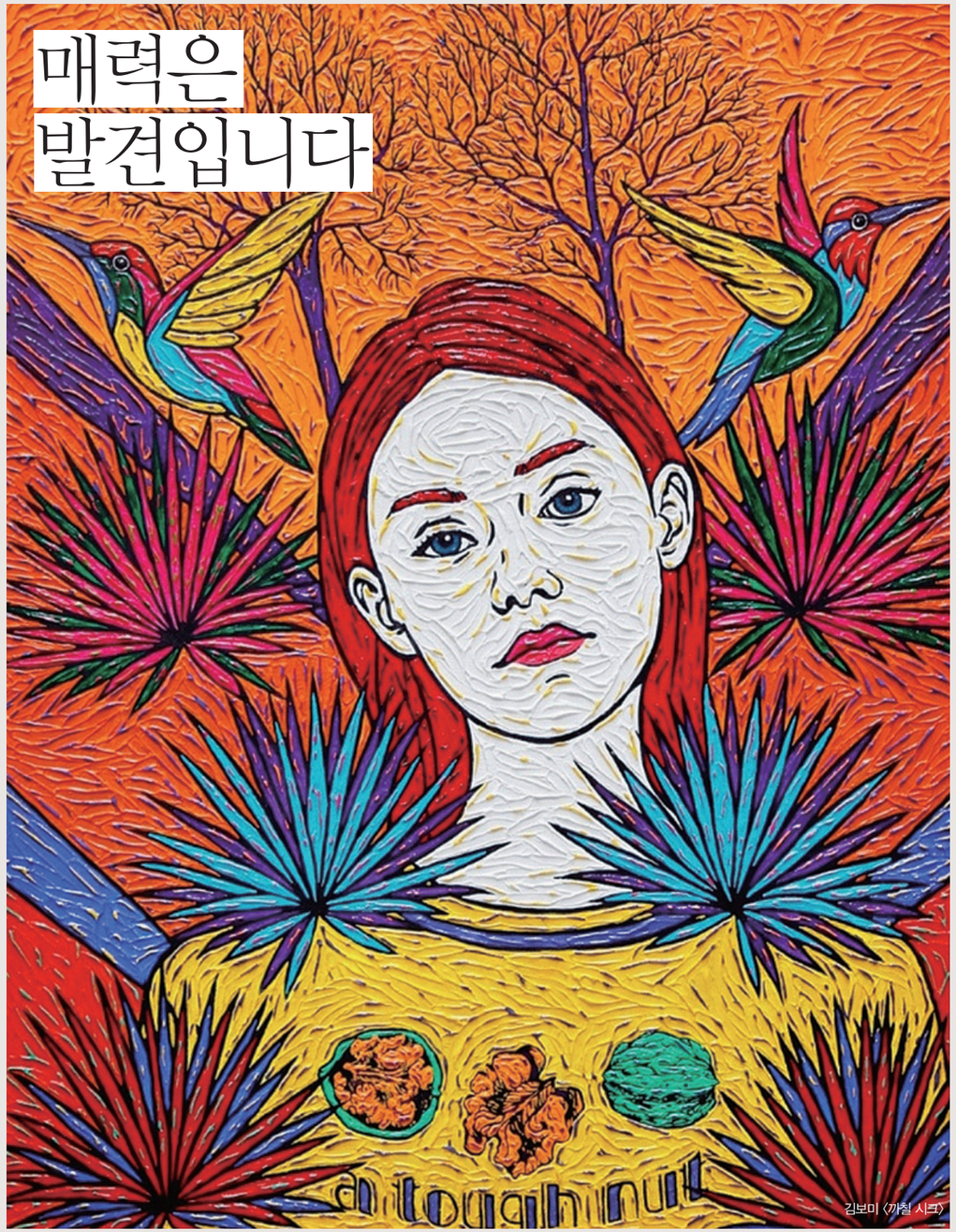
### 무더위 날려주는 부산의 시원한 맛

여름 부산 여행의 묘미는 시원한 맛에 있다. 북한에 평양냉면이 있다면 부산에는 밀면이 있다. 밀면의 탄생 배경 역시 부산의 피란수도 역사와 함께한다. 한국전쟁 당시 부산으로 내려온 이북 실향민들은 전쟁통에 메밀가루 같은 재료를 구할 수 없자 구호품으로 보급된 밀가루로 냉면을 만들었다. 밀 냉면이라고 불리던 이 음식이 오늘날의 밀면이다. 밀면 육수는 사골을 고아 쓰는데 가게에 따라 소뼈, 돼지뼈, 닭뼈, 한약재 등 저마다의 비법대로 재료를 사용해 맛을 낸다. 냉면과 마찬가지로 물밀면과 비빔밀면 중 선택 가능하다. 밀면 맛을 제대로 음미하려면 물밀면을 먹어보자. 오이, 무, 달걀, 고기 등의 고명과 양념장이 올라간다. 양념장을 잘 섞어서 본연의 맛을 음미한 후 취향에 따라 식초와 겨자를 가미한다. 찐만두를 곁들여 먹어도 좋다. 부산 전역에 유명한 밀면 전문점이 많은데 남구 우암동의 '내호냉면'이 원조 격으로 통한다.

여름철 대표 먹거리인 팥빙수, 특히 옛날식 팥빙수는 부산에서 꼭 맛봐야 한다. 수십 년 내공을 자랑하는 남포동 팥빙수골목에는 옛날식 팥빙수를 파는 노점이 모여 있다. 옛날식 제빙기로 드르륵 얼음을 갈아내고 그 위에 팥과 연유, 통조림 과일을 투박하게 얹어낸다. 팥빙수의 시원함에 추억이 덤이다. 부산 팥빙수 양대산맥이라 할 수 있는 용호동의 '용호동할매팥빙수'와 남천동의 '보성녹차팥빙수'는 기본에 충실한 옛날 팥빙수를 선보인다. 요즈음 유행하는 부드러운 우유 얼음 대신 씹는 맛이 있는 일반 얼음에 직접 삶은 팥을 듬뿍 올려준다. 두 집 모두 팥빙수 1인분 가격이 3000원. 착한 가격과 달콤한 맛에 절로 미소가 번진다.

글 임지영 (아트위드 대표/예술 칼럼니스트)

# 매력은 발견입니다




김보미 〈까칠 시크〉

딸은 불평하곤 합니다. 자기 코가 너무 낮다고요. 애먼 콧대를 억지스레 끌어올려보며 투덜거리죠.

– 콧대는 자존심인데, 난 너무 코가 납작해.

역시 외모가 문제입니다. 강남의 즐비한 성형외과들, 미용실은 우리의 자존심을 올려주느라 열일하고 있죠. 아직 젊은 딸아이에게 외모는 그리 중요한 게 아니란다, 본질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다, 라고 이야기한들 꼰대 어른 소리나 들을 게 뻔하고요. 그럴 땐 그저 빙그레 웃으며 가만히 바라봐주다가 담백하게 이야기합니다.

– 너의 코는 작은 동산 같아서 참 예뻐. 날렵하고 높진 않아도 다정하고 편한 인상을 만들어주잖아. 그게 얼마나 큰 매력인데!

딸과 꼭 닮은 그림 한 점을 구입했어요. 김보미 작가의 〈까칠시크〉라는 작품입니다. 세상을 향한 도도한 시선, 젊음이 가진 특유의 매력이 느껴지는 작품이죠. 만나보니 작가도 몹시 젊습니다. 그런데 젊음을 아주 치열하게 통과하고 있더라고요. 예술가에게 젊음은 가장 큰 힘이자 독이기도 합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기도 하고요. 뜨거운 젊음은 예술가를 능히 압도해 그 시간을 이겨내지 못하면 예술이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아주 끈질기고 악착같이 견디어, 시간을 세월로 만든 젊음만이 고유한 자기만의 매력을 갖게 되죠.

김보미 작가도 안간힘을 쓰고 있었어요. 외롭기에는 너무 시끌벅적하고, 예술만 파고 들기에는 너무 재밌는 세상이니까요. 스스로 고독한 길을 선택한 작가의 푸릇한 결기가 와닿았습니다. 더없이 매력적이었죠. 누가 뭐래도 나의 길을 가는 사람. 세상과 똑바로 마주 보는 사람. 그녀에게 반해 작품을 덥석 끌어안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은 약해도 까칠하고 시크하게 살고 싶은 마음을 담아 자화상을 그렸다고 하는데, 제 눈엔 이미 당당한 매력 넘치는 젊은이가 보였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딸도 그랬으면 하는 소망이 불끈 일어나 기어코 그림을 데려오고 말았죠.

매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태어날 때부터 장착하고 나와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디 매력 학원이라도 다녀야 할까요? 그런데요, 뜻밖에 불쑥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의외로 자신이 잘 모르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매력은 발견이랍니다. 이 그림 속에서 나를 잡아끄는 눈빛을 발견했듯이, 스치는 장미 넝쿨 속에서도 가시 같은 감흥을 알아채는 것. 뜨거운 7월의 밤들 속에서 모히또같은 청량을 잃지 않는 것. 그 모든 발견을 서슴지 않는 사람은 단언컨대 매력왕입니다.

나이 들수록 외모 평준화, 학력 평준화가 된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살아갈수록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지표는 외연이 아니라 심연, 고유한 그만의 매력이라는 이야기겠죠. 우리는 그것을 서로 발견하기만 하면 됩니다. 더러 좌심방 우심실에 숨어 있고, 엄지와 검지 사이에도 숨어 있어서 찾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히 어딘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조금 찬찬히 들여다보기가 필요합니다. 가만히 기다려주기가 필요합니다.

그림을 보는 일은 사람을 보는 일과도 같습니다. 화려하고 번쩍이는 그림이 있는가 하면, 밋밋하고 데면데면한 그림도 있어요. 중요한 건 모든 그림엔 자기만의 색과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교정을 지켜가는 일도 그렇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고 몹시 가치롭고 의미 있는 일이고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너무 큰 매력입니다. 좀 더 치명적인 나만의 매력을 발견하고 싶다면 옆사람에게 슬쩍 물어보셔요. 원래 자기 매력은 자기가 제일 모르거든요.

글 이정미(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학교 교수, 〈심리학이 나를 안아주었다〉 저자)

# 나의 성격, 다시 들여다보기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신의 성격이 가진 문제점이나 단점이 아니라 강점에 집중해야 한다. 자신의 대표강점을 일상에서 되도록 많이, 그리고 자주 사용하면 우울감은 줄어들고, 행복감은 늘어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집단 상담을 해보면 자신의 성격에 불만인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는 걸 알 수 있다. 몇 해 전 상담실을 찾아왔던 직장인 Y는 평소 남의 부탁을 들어주느라 정작 자기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늘 손해를 본다며 속상해했다. 그는 이러한 성격으로 직장에서도 과중한 업무를 떠맡게 되는 것 같다며, 업무 스트레스와 대인관계에서의 낮은 자존감으로 우울해하고 있었다. 상담 중에 실시한 성격강점검사 결과 '친절과 배려심'이 대표강점으로 나오자, 그는 친절한 성격이 어떻게 강점이 될 수 있냐며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기 일을 뒤로 미루더라도 남을 먼저 도와야 마음이 편한 그의 '친절한 성격'은 정말 그의 생각대로 단점일까?

Y와 함께 집단상담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자신이 만났던 친절한 사람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친절한 누군가로 인해 곤경과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던 고마운 경험들을 이야기했다. K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야간자율 학습시간에 갑자기 배가 아파 책상에 엎드린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끙끙거리며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때 자신에게 다가와 어디가 어떻게 불편한지 묻고, 선생님께 상황을 알리고 부모님께도 대신해서 전화해준 반장에 대해 이야기했다.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신학기라 아는 아이도 별로 없던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먼저 알아채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준 그 친구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된 지금까지도 절친하게 지낸다고 했다.

P는 얼마 전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확인하다 도로 옆에 주차되어 있던 수입차를 들이받은 일을 이야기했다. 멀쩡히 주차된 남의 차를 들이받았으니 스스로 생각해도 황당해서, 차량 소유자에게 사고를 알리는 전화를 하면서 잔뜩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일요일 이른 아침, 잠이 덜 깬 목소리로 전화를 받던 피해차량의 주인은 주차장에 나타나 이리저리 차를 살피더니 "많이 놀라셨겠어요"란 말부터 꺼냈다. 운전하다 보면 뜻밖의 사고가 나기도 한다며, 보험사에 연락은 했는지 묻더니 자기 차량 보험사에 전화를 걸어 필요한 조치를 한 다음 "조심해서 운전하세요. 이런 날은 되도록 쉬는 게 좋습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자리를 떠났다고 한다. 나중에 보험사 직원을 통해 들은 바로는, 그는 수리기간 동안 당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렌트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았고, 대중교통 이용료만 받고 사고를 마무리 지었다. 이런 종류의 사고가 났을 때 피해차량 소유주가 보이는 통상적인 반응과는 너무나 달랐고, 사고처리 과정에서 흔하게 일어나기도 하는 불필요한 잡음을 전혀 일으키지 않은 상대방이 어찌나 고마웠는지 모른다며, 자신도 비슷한 접촉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그처럼 해야겠다는 생각을 이야기했다.

집단 상담에 참여한 사람들은 각자 경험했던 친절한 사람의 고마운 일화를 이야기했고, 누군가의 배려심과 이타심이 갖는 선한 영향력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다. Y도 차츰 그동안 까맣게 잊고 있었던, 친절한 성격이 자신의 인생에 불러온 좋은 인연들을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강점인지 타인의 관점에서 새롭게 조망하게 되면서, 잃었던 자존감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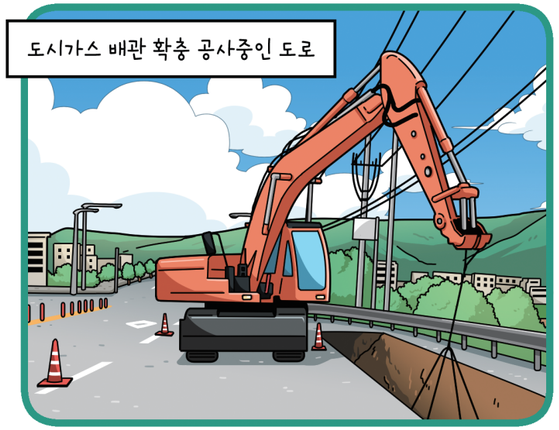
우리는 남들과 구분되는 자신의 성격적 측면을 바라볼 때 주로 약점(weakness)에 초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자신의 성격적 강점(strengths)마저도 '문제'나 '약점'으로 해석하고 '결점'으로 풀이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생각보다 꽤 많다. 지나치게 엄격한 시선으로 자기 자신을 감찰하기도 하고, 이익과 손해 관점에서 자신을 평가하며 스스로 자신을 옭죄며 심리적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다. 자기 자신에 대해 냉정한 평가자의 시선 혹은 부정적인 시선을 갖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을 싫어하게 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르고서 말이다. 자기비하와 자기부정은 자존감을 떨어뜨리게 하고 우울감을 느끼게 하는 지름길이므로 백해무익한 데도 말이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자신의 성격이 가진 문제점이나 단점이 아니라 강점에 집중해야 한다. 자신의 대표강점을 일상에서 되도록 많이, 그리고 자주 사용하면 우울감은 줄어들고, 행복감은 늘어남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성격이 지닌 강점을 파악할 수 있는 무료온라인검사(https://www.viacharacter.org)를 소개한다. 사이트에 접속해서 간단한 절차로 회원가입을 하고, 검사를 위한 언어로 '한국어'를 선택한 후 TAKE THE FREE SURVEY 탭을 클릭하면, 바로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결과 얻어진 다섯 개의 성격강점을 특별히 '대표강점'(signature strength)이라 하는데, 이는 다른 사람과 구분되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대표적인 성격적 강점이라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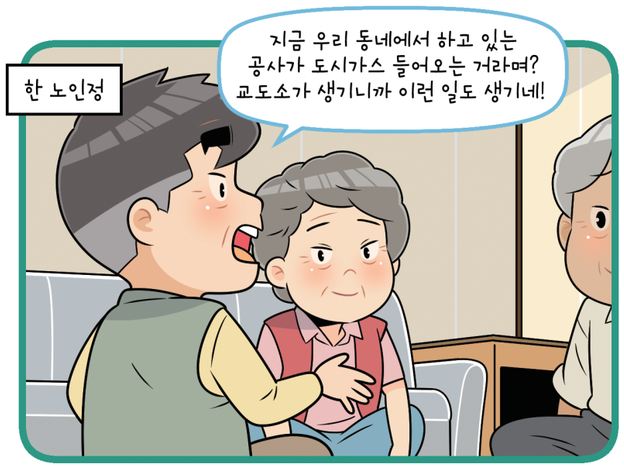
*다음 호에서 검사 결과 활용하는 법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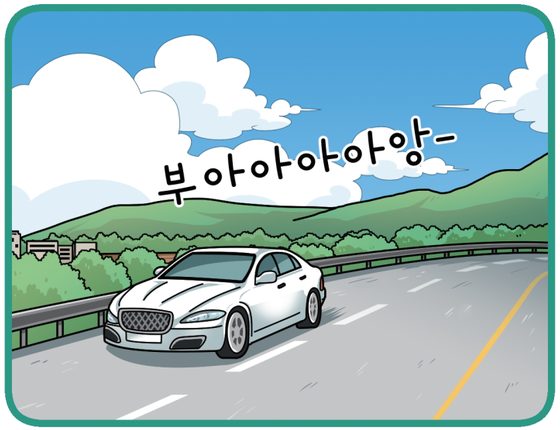
보라미, 보드미와 함께

그림 유용필

# 우리 동네에 교정시설이 들어온대!







글 신예희(프리랜서 작가) 정리 편집실

# 다른 성향의 사람과 꼭 친해져야 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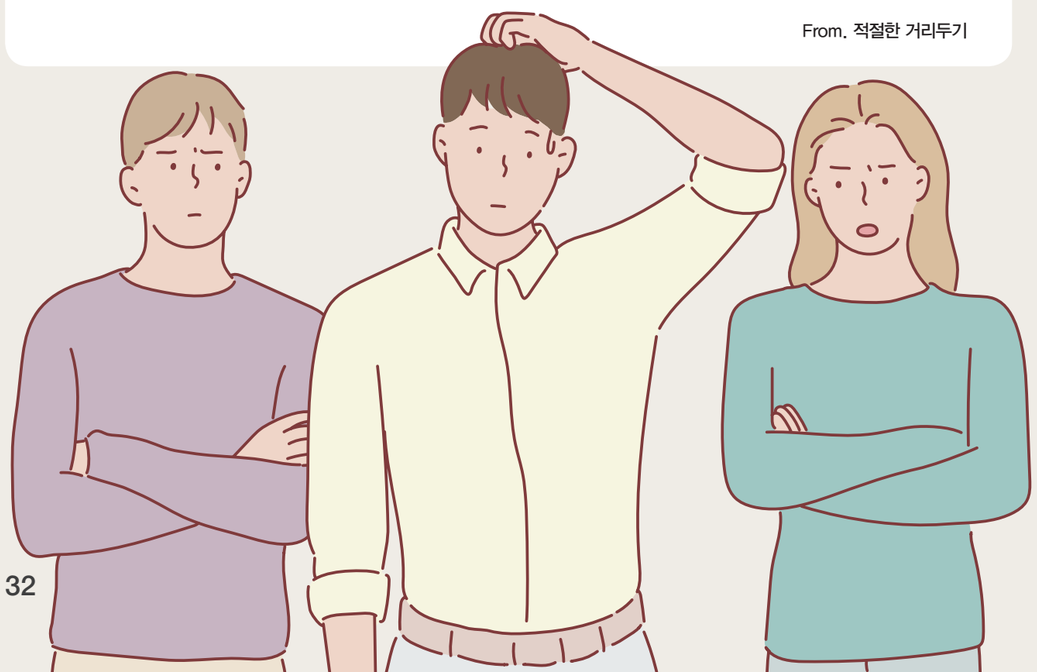
## 교정공무원의 고민상담소

교정공무원으로 살면서 느낀 어려움, 스트레스가 있다면 익명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사소한 고민이라도 월간 〈교정〉이 해결에 보탬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시면 따뜻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고민 사연**

저는 평소에 예의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재밌자고 아무 말이나 하지 않고 실수를 했으면 바로 사과하려고 노력하죠. 술 마시고 흐트러져서 막말하는 것도 아주 싫어합니다. 제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도 용납 못 하겠고 남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무척 싫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의를 지키고 싶은데 사람들이 이런 저를 정 없다고 싫어하는 것 같네요. 직장동료끼리 너무 거리를 두면 안 된다고 막무가내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는데 솔직히 곤혹스럽습니다. 너무 다른 성향의 동료로 인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From. 적절한 거리두기





> 동료 모두와 끈끈한 형제 같은 감정을 나누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와, 그건 저도 싫네요. 그저, 우리는 사회인이니 때와 장소와 목적에 따른 적절한 가면을 부드럽게 썼다 벗었다 하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적절한 거리두기' 님. 반갑습니다.**
보내주신 글이 마치 서릿발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읽으며 답답하고 속 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의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한다.
–막말하지 않으려 한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바로 사과하려 한다.

선생님이 지향한다는 자세는 모두 참 멋진 것들이고, 저 역시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키려고 애씁니다. 그럼 대체 왜 답답하다는 건지 궁금하시겠죠. '나든, 남이든 그런 건 절대 용납 못 해!'라는 고집이 느껴져서입니다.

절대라는 건 생각보다 별로 없습니다. 책이든 음식이든 여행지든 색깔이든 옷 스타일이든 말투든 과거의 한때 깊이 꽂혔던 것들을 떠올려 보면, 절대 싫다고 생각했든 절대 좋다고 생각했든 간에 아주 많은 경우 한데 고여있지 않고 다양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독야청청 꼿꼿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알게 모르게 바람도 맞고 비도 맞으며 생각하지 못한 곳으로 서서히 이동해요. 그 와중에 본 형태가 바뀌기도 하고요. 인생은 그래서 재미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곳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게 바로 고인 물이겠죠.

한때 '까칠하다'는 표현이 꽤 유행했습니다. 당시의 까칠이란, 남들보다 예민하고 섬세한 나만의 기질을 꼿꼿하게 고수하며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좀 아슬아슬한 게, 까칠함의 선을 지키기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과해지면 타인을 혐오하게 됩니다. 쟤들은 무디고 무례하다 깔본 후(티 내지 않으려 해도 티가 납니다), 나는 까칠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까칠함은 감투가 아니며, 타인은 바보가 아닙니다. 특히 같은 커뮤니티의 구성원이라면 최소한 나만큼 똑똑하거나 나보다 잘났을 것입니다. 어쩌면 내 닫힌 마음을 일찌감치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 더 손을 내미는 것일지 모릅니다.

이 글의 목적은 선생님이 동료 모두와 끈끈한 형제 같은 감정을 나누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와, 그건 저도 싫네요. 그저, 우리는 사회인이니 때와 장소와 목적에 따른 적절한 가면을 부드럽게 썼다 벗었다 하는 방법을 익힐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식적인 것 같나요? 솔직하지 못한 것 같아 별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다양한 교육은 사회적 가면을 쓰고 좋은 얼굴로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인간을 만들기 위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한편, 관계가 부담스러울 땐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티 나게 인상을 쓰고 진짜 싫으니 꺼지라고 할 수도 있고, 적당히 대꾸하며 스리슬쩍 뒤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가수 마마무의 노래 〈음오아예〉 기술이라고 농담합니다. 음, 그렇습니까. 오, 그렇군요.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를 반복하곤 해요. 음오아예 몇 바퀴면 상대방도 대충 눈치를 채고 다른 사람에게 가더라고요.

**<참여 방법>**

**어떤 사연이든 누군가와 상담하고 싶은 고민이 있다면 익명으로 신청해주세요. 신청은 이메일(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 또는 QR코드 응모 페이지로 받습니다. 이름과 개인정보는 기재하지 말고 고민만 작성해 보내주세요.**

글 편집실 자료 제공 농심

여름에 딱! 간편하게 만드는

# 냉冷라면 레시피

허기지고 피곤할 때 가장 만만하게 조리할 수 있는 요리, 라면.
언제 먹어도 맛있는 요리지만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뜨거운 라면만
먹으라는 법은 없다. 이보다 더 쉬울 수 없는 냉라면 만들기.

**재 료** 라면 한 봉지, 물 300ml

**조리 순서**

❶ 물 300ml에 라면 분말 스프와 건더기 스프를 넣고 끓인다.

❷ 시원한 국물을 위해 그릇에 옮겨 담아 냉장 혹은 냉동실에 넣어둔다.

Tip 완전히 차가운 국물을 원한다면 냉장고에 30분~1시간 정도 먼저 넣어 놓은 후 조리를 시작한다.

❸ 면을 삶아 찬물에 시원하게 헹군다.

Tip 면을 찬물에 씻으면 탱탱하고 쫄깃해져서 차갑게 먹기 좋은 식감이 된다.

❹ 냉장보관한 국물을 꺼내 차가운 면 위에 붓는다.

**Tip**

기본적인 조리 순서는 위와 같게 하고 갖가지 고명을 올리면 다양한 맛의 냉라면을 즐길 수 있다.

***김치말이 냉라면**

김치를 잘게 썰어 올리면 김치말이 냉라면이 된다. 이때는 짠맛을 덜기 위해 스프를 반 개만 넣고 끓이면 좋다. 김치에 참기름을 섞어 버무리면 더욱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다. 이밖에 오이, 맛살, 단무지, 삶은 계란 등을 첨가하면 보기도 좋고 맛도 좋은 냉라면이 된다.

글 이영환

# 서늘한 게 매력

## <검은 사제들> Vs. <사자>

필시 웃음이라는 것은 만병통치요, 그 효능 및 신뢰도라 함은 故 황수관 박사가 기 보증하여 의심할 나위 없겠으나, 송구하게도 "웃으면 덥다"라는 것 또한 임상 과학적이고도 보편적 사실인 바. 그래서 준비한 시원한 영화 두 편. 오뉴월부터 시작된 유사 열대성 기후에 다소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며.

### <검은 사제들>

줄거리 뺑소니 교통사고 이후 귀신 들린 듯 기괴한 증상에 시달리는 고등학생 영신(박소담). 천주교단은 "때가 어느 땐데 귀신 같은 소리야"라며 구마* 의식에 회의적이다. 그럼에도 김신부(김윤석)는 영신을 구하기 위해 구마 의식을 강행하고, 의식을 함께할 보조 사제인 최부제(강동원)을 찾아 영신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데… *악마를 내쫓는 행위

장르: 미스터리, 드라마 **시간:** 108분 **감독:** 장재현 **출연:** 김윤석, 강동원, 박소담

<검은 사제들>은 매력적인 배우 박소담의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가 상영 시간의 절반인 영화다. 박소담은 라틴어 포함 4개국 어학 능력을 뽐내는 악마 연기로 그해 주요 영화제 조연상을 휩쓸었다. 특히 악마에 빙의해 눈알을 까뒤집고 "내가 형수를 강간하랬지!"라고 소리치는 장면은 한국 공포 영화의 새로운 심볼이 됐다. <검은 사제들>은 영신의 몸속에 숨어든 악마를 내쫓기 위한 사제들의 사투를 그렸다. 이 영화를 통해 '무서우면 춥다'라는 풍문이 임상적 근거를 토대로 한 과학적 사실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몸은 무서운 영화를 보면 교감 신경이 흥분하여 식은땀이 나고, 땀이 증발하면서 체온이 2~3도 내려간다. 유식한 용어로 '흡열 반응'이라고 한다.
<검은 사제들>은 시간당 15.6회씩 깜짝깜짝 놀래는 대 유아적 까꿍 남발의 덫을 놓지 않는다. 대신 음산한 분위기를 천천히 고조시키고, 숨죽인 채 악마의 모습을 서서히 끌어낸다. '깜짝'의 빈도수는 적지만, 공포의 질이 높고 견고하다. 그러니까 박소담 등장하면 일단 선풍기 끄셔도 충분히 시원하다 하겠다.

**명작의 부스러기**

'퇴마'라는 비주류 장르 중 이례적으로 5백만 흥행을 달성했다. 장재현 감독의 첫 장편 데뷔작이라 더욱 놀랍다. 참고로 후속작은 이정재 주연의 오컬트 영화 <사바하>다.

개봉 전부터 "강동원 나오는데 사제복 입음"으로 입소문을 탔지만, 개봉 후 예상외로 박소담의 연기가 더욱 조명을 받았다.

극 중 악마에 빙의한 영신이 사용하는 중국어, 영어, 라틴어는 전문인의 감수를 받아 배우 박소담이 직접 목소리 연기했다고.

### <사자>

줄거리 어릴 적 아버지를 잃은 뒤 세상에 대한 불신을 안고 살던 종합격투기 선수 용후(박서준). 알 수 없는 상처가 손바닥에 생기고 상처 난 손에 특별한 힘이 있음을 깨닫는다. '용후'는 우연히 악의 존재를 알게 되고, 안신부(안성기)와 함께 검은 주교를 찾아 나선다.

장르: 미스터리, 액션, 판타지, 공포 **시간:** 129분 **감독:** 김주환 **출연:** 박서준, 안성기, 우도환

이 영화는 다른 의미로 시원하다. 마귀들의 불기짝을 불꽃 주먹으로 후려치는 야무진 맛이 있다. 유약한 인간이 강력한 악에 맞서는 게 오컬트 장르의 핵심 매력이라면 <사자>의 주인공은 별로 유약하지 않다. 아니, 오히려 악마 쪽이 더 유약한 편(물론 오컬트* 영화로서의 음습한 기운도 존재한다). 보통 오컬트 영화 속 신부는 식은땀 흘리며 침대 앞에서 성경 낭독 및 십자가 빔만 쏘지만, 용후(박서준)는 악귀들을 패고 다닌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듯 악귀들의 아구창이 남아나지 않는다. 아직 싱글인 마동석이 장첸 얼굴을 수타 반죽했던 <범죄도시>처럼 답답한 속이 뻥 뚫린다. 오컬트 특유의 답답함과 무기력함을 싫어했던 관객이라면 강한 남자 용후는 더욱 반갑다. MMA 파이터인 용후는 우연히 만난 구마사제 안신부(안성기)를 만나며 본인의 손에 특별한 힘이 있음을 알게 되고 검은 주교를 찾아 손을 봐준다는 심플한 줄거리다. 과 함유된 판타지 요소가 다소 허무맹랑해 보여 실소를 유발할 수도 있었지만, 안성기 배우의 무게감이 흡사 습자지 수준의 현실성이 공중에 흩날리지 않도록 지그시 눌러준다. 영화에 그가 등장하면 왠지 모를 안도감과 신뢰감이 생긴다. 다만 그의 열연에도 손익분기점 절반에 못 미치며 아쉽게 흥행에 실패했다.

**명작의 부스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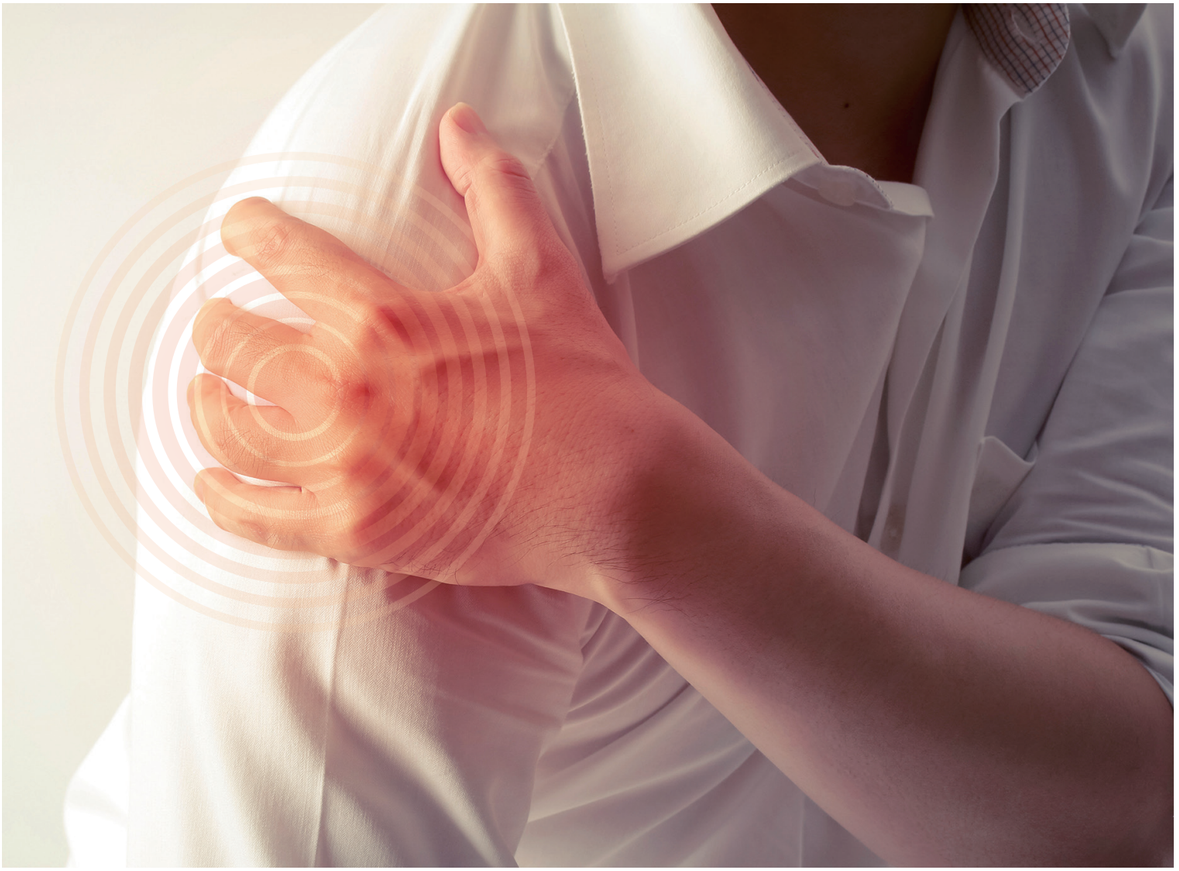
주요 등장 인물들의 성 씨가 실제 배우 성과 일치한다. 박용후-박서준, 안신부-안성기, 최신부-최우식 등.

당초 시리즈로 제작했으나 같은 날 개봉한 <엑시트>에 흥행 면에서 밀리며 후속작에 대한 소식은 현재 없는 상태다.

<퇴마록> 이후 안성기의 두 번째 오컬트 영화. 심지어 이번에도 동일한 사제 역할이다. 참고로 그는 실제로도 천주교 신자다. 세례명은 사도 요한.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악령 · 악마 등을 주 소재로 다룬 영화

# 무서워서 시원한 영화



# 생활 속에서 흔히 느끼는 어깨 통증 그 원인과 치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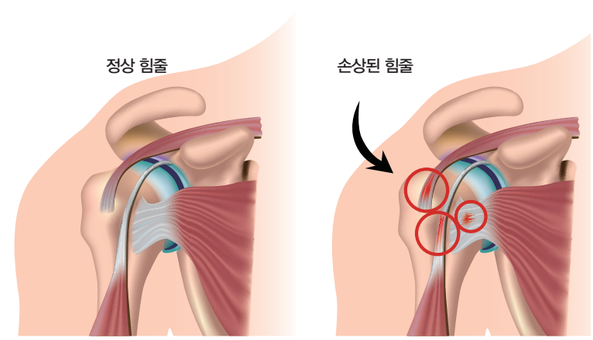
**옷을 갈아입을 때, 세수를 하거나 샤워할 때, 밥을 먹을 때, 특별히 의식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언제나 어깨를 사용한다.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하게 활동하던 어느 날 갑자기 어깨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통증이 느껴질 때가 있다. 좀 쉬면 낫겠거니 하고 무심하게 지나칠 수도 있고 찜질이나 파스로 통증 완화에 집중할 수도 있다. 그래도 나아지지 않는다면? 원인을 고민해봐야 한다.**

## 일상 생활 방해하는 어깨 통증

어깨 통증이 사라지면 다행이지만 문제는 낫지 않고 증상이 계속 될 때다. 이런 경우 크게 두 종류로 원인을 추측할 수 있다. 나이가 50대 이상인 경우 쉽게 발생해 오십견이라고 이름 붙은 어깨 질환인 유착성 관절낭염과 어깨 통증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인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다.

오십견, 유착성 관절낭염은 이제 더이상 50대 이상의 연령층에게만 나타나는 증상이 아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장시간 쥐고 이용하며 운동이 부족한 사람이 많은 요즘은 30~40대도 흔히 겪는 증상이 됐다. 한 번 발생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제때 알맞은 대처를 하지 못했을 때에는 관절 운동이 원활하게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다. 어깨 관절을 감싸는 관절막인 윤활주머니에 염증이 발생해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어깨에 신축성이 떨어지고 운동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된다. 심한 경우에는 사소한 접촉만으로도 강한 통증을 느끼게 된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은 여러 형태의 어깨 통증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라 해도 무방할 것이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감싸고 있는 네 개의 힘줄을 말한다. 그 힘줄 중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약해지거나 파열되면 어깨에 통증을 일으키는 것이다.
네 개의 힘줄 중 가장 상부인 극상건에서 통증이 시작될 확률이 가장 높다. 먼저 염증 증상이 생기면 이로 인해 힘줄이 약해지고



파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회전근개 파열이 발생하면 팔을 들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다가 차차 완화되기도 한다. 몸을 바로 세우면 통증이 감소하지만 누우면 심해져 수면 장애를 호소하는 환자들도 있다.

## 운동하는 습관으로 예방

유착성 관절낭염과 회전근개 파열은 통증의 위치나 팔을 어느 방향으로 돌릴 때 통증을 느끼는지 등의 검사로 구분 및 진단할 수 있다. 간단하게는 어깨 전 부분에서 통증이 일어나는지, 특정 방향으로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하는지에 따라 각각의 특성이 나타난다. 단 정확한 진단은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
이와 같은 어깨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어깨 부위 운동을 틈틈이 해서 단련시키는 것이 좋다. 벽을 본 자세에서 팔을 어깨보다 조금 더 넓게 벌린 상태로 팔굽혀 펴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평소 운동량이 부족해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격렬한 운동으로 인해 통증이 유발되는 사례도 많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서 근육과 인대를 풀어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일상에서도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게 하는 자세를 지양하고 어깨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자세는 가급적 하지 않아야 한다.
흔하지는 않지만 어깨 통증의 원인이 목 디스크에 있는 경우도 있다. 어깨에서 저린 느낌을 자주 받는다면 디스크 돌출이나 파열로 신경이 자극되는 것을 의심해볼 만 하다. 이상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전문가의 소견을 들어야 한다.

글 편집실

# 자기만족과 자기과시의 공존 플렉스

"나 오늘 플렉스 해버렸어!"
요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유행어로 떠오른 것이 '플렉스(Flex)'다. 주로 SNS로 소통하는 2030 세대는 자신의 과소비도 타인에게 거리낌 없이 자랑한다. '자기만족'을 가장 중요시하는 젊은 세대들이 사치성 소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일종의 '자기과시'인 '플렉스 문화'가 성행하는 이유다.

## 1 트렌드와 차별화된 경험 추구

'플렉스(Flex) 문화'는 1990년대 미국 힙합 분야에서 유래하였다. 래퍼들이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비싼 물건을 뽐내는 모습이 등장했고, 1992년 흑인 래퍼 아이스 큐브가 '다운 포 왓에버(Down For Whatever)'라는 노래에서 처음 '플렉스'라는 말을 썼다. 이후 유명 래퍼들을 중심으로 '플렉스'가 널리 퍼지게 됐다. 플렉스라는 단어 자체가 '과시하다', '자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플렉스는 '돈 자랑하다'는 뜻의 신조어로 부상했다.
우리나라에서 플렉스 문화는 지난해부터 패러디나 개그 소재로 활용되면서 점차 유행하기 시작됐다. 작년 한 방송에서 래퍼 염따가 명품을 자랑하면서 "플렉스 해버렸지 뭐야"라고 한 이후 '과소비'를 당당하게 드러내는 의미로 인식되며 젊은 층에게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

'플렉스' 문화는 소위 'MZ세대'를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었다. 'MZ세대'는 1980년~1994년생을 일컫는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2004년생을 지칭하는 'Z세대'를 합쳐 부르는 말로, 보통 20~30대 젊은 세대를 지칭한다. 요즘의 젊은 세대는 트렌드를 쫓으면서도 차별화된 경험을 추구한다. 이러한 세대 특징이 '플렉스 문화'에 쉽게 빠지게 하고 있다. 젊은 층의 플렉스 심리는 설문 조사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Flex

플렉스라는 단어 자체가 '과시하다', '자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지금의 플렉스는 '돈 자랑하다'는 뜻의 신조어로 부상했다.

## 2 명품 구매 넘어 고급 호텔에서 럭셔리하게

최근 한 구인 · 구직 사이트가 20~30대 3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1%가 플렉스 소비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 중에 '자기만족이 중요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즐기는 것도 다 때가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좋을 것 같아서', '인생은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삶에 자극이 되어서' 순으로 나타났다.

2030 세대의 절반 이상이 '사치성 소비'에 긍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자기만족'이라는 결과에서 알 수 있듯,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자기만족'은 가장 중요한 가치다. 자기 자신보다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기성세대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젊은 세대의 플렉스 문화는 결국, '자기만족'과 '자기과시'가 공존하는 문화다. 젊은이들은 사회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만은 별개의 주체로 여기고 싶어 한다. 이러한 심리는, 많이 가지지 못했지만 고가의 명품을 비롯해 세계여행, 호텔, 고급음식, 자동차 등에 돈을 쓰고 싶어 한다.

## 3 내 만족, 내 욕구대로 산다!

어느 백화점의 포인트 카드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20대의 명품 브랜드 구매 건수가 2017년 2분기 6,000건에서 2019년 2분기에는 4만 4,00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대의 명품 브랜드 구매 비중도 5.4%에서 11.8%로 껑충 뛰었다. 요즘 호텔업계의 새로운 화두 역시 '플렉스'다. 명품, 자동차 등 귀중품 소비에서 호텔 등 고급 숙박시설에서 럭셔리하게 즐기는 문화로까지 번졌다. 조금이라도 소비를 줄이고, 저축하면서 내 집 마련을 목표로 살았던 기성세대와도 확연한 차이다.

20~30대 3천여 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1%가
플렉스 소비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이중에 '자기만족이 중요해서'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현재의 불안한 심리를 탈출하려는 욕구가
결국 젊은 층의 '플렉스 소비'로 이어진 셈이다.
최근에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여가 생활을 위한 소비를 늘리면서
'코로나 플렉스'라는 단어도 생겨났다.

요즘 젊은이들이 '사치성 소비문화'인 '플렉스'에 빠지는 이유는 현재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갈수록 취업이 어렵고 경기침체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희망이 점점 사라진 마당에, 올해 초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는 직격탄을 날렸다. 이런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은 밝은 미래를 꿈꾸고 설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긴다. 이러한 불안한 심리의 표출이 '플렉스 문화'다.

집 한 채 없어도 자동차 한 대는 살 수 있고, 명품 가방 정도는 소유하겠다는 보상 심리가 구매로 이어진다. 또한 이로 인해 타인의 주목까지 받으니 플렉스 소비가 큰 효과를 준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불안한 심리를 탈출하려는 욕구가 결국 젊은 층의 '플렉스 소비'로 이어진 셈이다.

최근에는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여가 생활을 위한 소비를 늘리면서 '코로나 플렉스'라는 단어도 생겨났다. 코로나 사태로 '집콕', 즉 집에만 콕 박혀 있는 생활이 지속되면서 생각이 많아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도 많아졌다. 그러면서 인식의 전환이 생긴다. 인간이 아무리 대비하고 노력한다 해도, '코로나19'처럼 불시에, 불가항력적인 사태가 닥치면 세상은 어떻게 변할 지 아무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 것이다. 따라서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 땅에 사는 한,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돼 버린 것이다.

## 4 경제 불안 등의 탈출 심리가 표출

글 교감 장선숙(의정부교도소)

# 아직도 꿈꾸는 교도관

**2009년 법무 연수원에서 취업 담당자 교육 중 '직업 별칭 짓기' 시간을 만났습니다. 이미 교도관으로, 두 아이의 엄마로, 마흔이 다 된 나에게 새로운 꿈을 위해 직업 별칭을 짓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업은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내 꿈을 찾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 꿈은 선생님이었습니다. 힘든 학창 시절, 따뜻한 손을 내밀어 세상의 온기를 전해주셨던 선생님처럼 누군가의 등을 따뜻하게 토닥여줄 수 있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기자, 치과의사, 작가 등으로 오락가락할 때도 있었지만 언제나 '선생님'이란 꿈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허나 넉넉지 못한 살림 때문에 대학 진학을 미루게 되었고, 교도관이 된 후에도 수없이 '다시 공부해서 사범대학을 갈까?'를 고민하기도 했지만 나는 여전히 교도소에서 범죄자들과 아옹다옹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녹록치 않은 근무 환경에 치이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다보니 '이렇게 안주하고 마는가' 하는 회의감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와 은사님 그리고 '보통의 아줌마 공무원으로 살지 않겠다'는 나 자신과의 약속은 늘 마음속 깊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란 대단한 녀석과 타협하며 당면한 일상에 안주하지 않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을 때 '직업 별칭 짓기'를 만난 것입니다.

내 직업 별칭은 '짱쌤'입니다. 아이들의 선생님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재 내 앞에 있는 이들의 선생님이 되는 것으로 꿈을 재설정하고 더 늦기 전에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했습니다. 내가 꿈꾸는 것은 '힘든 이에게 따뜻하게 손 내밀어 그들의 진로에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우선 용기 내어 법무 연수원 내부강사과정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수용자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과 창업지원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 업무의 이해'라는 사이버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그러다 교정대상을 받게 되어 서울에서 근무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뜻밖에 주어진 선물의 의미와 그 선물에 대해 보답하기 위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 '교정공무원의 행복한 삶'을 연구목표로 삼고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히 우리 교정공무원이 하는 일의 가치에 대해 고민했고, 교정공무원의 행복한 진로를 위해 '교정공무원의 퇴직 후 진로전환'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교정공무원으로 30년 정도 재직하고 퇴직 후 새로운 일을 하는 선배님들을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현직에서는 성실하게 일했고 현재도 꾸준히 자기계발을 하며 열정적으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저마다 각자의 삶을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으로 교정인으로서 후배들을 위해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일흔이 넘은 연세에도 아직도 새로운 꿈을 꾸고 노력하는 선배님들이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박사논문을 마치고 저 역시 오랜 시간 묻어두었던 일을 슬그머니 꺼냈습니다. 30여 년 간 여자 교도관이면서 남자 수용자들을 만났고 출소자, 수용자 가족들을 만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업무의 가치, 자부심을 느끼지 못한 채 주눅들어 있는 교정공무원들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높은 담장 안에서 한 송이 꽃을 피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내하면서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있는지 알리고 싶었습니다. 교정인은 물론이고 가족, 지인에게도 제대로 알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교도관이 수용자를 괴롭히는 존재라고 오해하는 이들에게 더 크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 위해 조금은 두렵고 어려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글쓰기

'일흔이 넘은 나이에도 어떻게살아야 할지,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을 찾고 계셨습니다.

강의를 듣고, 수집해 두었던 자료들, 편지들을 정리하고 전문 작가들을 찾아 조언을 구해가며 책쓰기에 도전한 것입니다. 수용자 교육에 참여하면서 인연이 된 나태주 시인님과 김창옥 강사님 등 많은 분의 감동적인 추천사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의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왜 하필 교도관이야?'가 지난해 교정의날 세상에 나와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후 방송 출연, 신문사 인터뷰, 대학 강의를 통해 우리 교정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때마침 서울가정법원 판사님들 연구모임에서도 강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들은 법원장님께서 "정말 애쓰시는 교정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깊게 고개 숙여주셨고 검사님과 변호사님들께서도 '감동과 반성'이라는 리뷰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경찰, 검찰, 법원에서 짧은 시간 수용자들을 만나거나, 기록을 통해 판단하는 것과 달리 우리 교정공무원은 오랜 시간 '사람들'을 만나고 교정교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귀한 일, 세상과 가족들마저 버린 이들을 거둬 한사람이라도 더 건전한 사회인으로 양성하고자 애쓰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퇴직한 선배님들도 책을 읽은 후 '교도관이었음이 자랑스럽다'고 하셨고 어떤 교정인의 가족께서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너도 이런 귀한 일을 하는 교도관이 맞느냐?'고 물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수용자는 교도관이 자신들의 적이라 생각했는데 오히려 자기들 편에서 고민해 주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수용중인 책 속의 등장인물들도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꿈은 특정 직업을 지칭하는 명사가 아닙니다. 그 명사를 향해 움직이는 현재 진행형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보호관찰 청소년을 만나러 가는 중입니다.

글 문OO

# 빨래

'희망의 백일장'은 수용자들이 반성하는 마음을 담아 출소 후 떳떳하고 희망적인 삶을 살겠다는 다짐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참회와 교화의 시간을 거쳐 사회로 돌아갈 수용자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독자 여러분의 격려가 필요합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의 면면은 다양할 겁니다. 기결되어 모든 걸 내려놓은 채 마음 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미결이어서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 신경 쓰랴, 가족들 걱정에 한숨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실수를 여러 번 해서 교도소가 익숙한 이들도 있을 테고 처음이라 이곳의 분위기가 낯설고 속없이 장난치고 웃는 수용자들을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인생이 끝났다고 여겨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이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은 끝나지 않았고 봄날은 아직 오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의 봄날은 언제나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올 테니 힘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이 담장 안이든 담장 밖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울해 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돌아보세요. 모두가 우리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계장님도, 주임님도 우리가 무사히 출소할 수 있도록 애를 쓰고 있고 바깥에서는 우리의 소중한 사람들이 무사히 품으로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혹독한 겨울 같은 날은 언젠간 지나갈 것이고 봄날은 올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봄날을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마음으로 떠나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봄날이 찾아온 줄도 모른 채 추운 마음으로 살아가지도 맙시다. 돌아보면 저에게도 봄날의 따뜻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저에게는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섬유유연제를 넣어 돌린 빨래에서는
봄꽃향기가 났고 어머니의 웃음소리도
그날따라 유난히 크고 유쾌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늘 고단했던 저는 휴일이면 늦잠을 잤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미용실을 운영했는데 바쁜 와중에도 늘 저의 아침밥을 챙기셨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자식 굶기지 않고 키우겠다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그날도 저는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손님이 없는 틈을 타 미용실 옆에 붙어있는 텃밭으로 일하러 가신다며 잠에 취한 저에게 세탁기에 빨래를 돌리라고 하셨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한 다음 날이라 정말로 간절하게 늦잠을 자고 싶었습니다. 하지 않고 버틸까 하다가 밭일 하고 오시면 피곤할 어머니를 생각하며 몸을 움직였습니다. 세탁기가 빨래를 해주기는 했지만 마지막 탈수 전에 섬유유연제를 넣어야 했던지라 귀찮음이 가득한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우리집 세탁기는 저보다 나이가 많은 일명 '통돌이'였습니다. 통돌이가 낡은 소리를 내며 마지막 탈수를 마치고 '삐삐삐'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때도 키가 작아서 빨래를 꺼낼 때면 통돌이에 매달리다시피 했습니다. 대야에 빨래를 담아 텃밭쪽으로 갔습니다. 미용실에 딸린 집이다 보니 빨래를 말리려면 무조건 건조대를 들고 바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텃밭에서 밭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늦잠을 자지 못한 저는 입이 나올 대로 나와 있었지요. 고추모종을 심고 계시는 어머니에게 시위라도 하듯 일부러 귀찮은 티를 팍팍 내며 빨래를 널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짐짓 모른 채 하셨지만 저는 뭔가 불만을 터트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발 아래에 갈색의 길고 긴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에 돌인 줄 알고 걷어차려 했는데 자세히 보니 '개똥'이었습니다. 저는 이때다 싶어 어머니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어떤 개XX가 똥을 싸 놓았어요!"

어머니는 아직도 미용실 손님들과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웃는다고 하십니다. 얼굴에는 귀찮음에 가득해서 뚱해 있던 아이가 하기 싫다고 짜증을 내는 것이 아니라 개똥 때문에 짜증을 내며 소리치는 상황이 너무 우스웠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시절이 저에게는 봄날처럼 따뜻했습니다. 섬유유연제를 넣어 돌린 빨래에서는 봄꽃향기가 났고 어머니의 웃음소리도 그날따라 유난히 크고 유쾌했습니다.

스무 살 무렵부터 6년 가까이 어머니의 연락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때에도 미용실 손님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겉으로는 웃고 계셨을 테지만 마음속으로는 소식을 끊은 딸로 인해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셨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덧 스물여덟 살이 된 저는 7개월 후면 어머니 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항소 선고 전, 어머니께서는 제가 몇 개월을 받든지 죗값을 다 치룰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어머니 곁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쁘시다는 어머니를 졸라 봄나들이도 하고 싶습니다.

어머니! 처음 잡혀 왔을 때 어머니께서 '많이 무서웠제?'라고 하셨던 말씀에 이제 대답할 수 있습니다. 네, 무서웠습니다. 그러나 이젠 무섭지 않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다리고 있으니 저는 잘 생활할 수 있어요.

저는 다시 태어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저를 키워주시고 허물 많은 딸을 포기하지 않으신 부모님을 위해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다림에 보답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나가서 '기다려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나가서 더 잘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죗값을 치르고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글 편집실

#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을 향한 여정
# 우리는 변함없이 동주공제(同舟共濟) 중

지난 6월 25일 교정본부에서는 최강주 본부장의 퇴임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퇴임식은 1989년 교정간부 31기로 공직에 입문한 최강주 교정본부장이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감하는 날이기도 했다. 교정본부장으로서 지난 2년간 거두었던 성과와 직원들의 영상편지가 담긴 영상을 함께 보며 동주공제(同舟共濟)한 기억을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다. 교정본부장으로서의 소임을 무사히 마친 최강주 교정본부장은 후배들의 따뜻한 박수를 뒤로하고 명예롭게 퇴장했다.

## 1 소통과 화합

**동주공제의 운명공동체를 만들다**

2018년 7월 1일, 취임 당시 최강주 본부장의 일성은 ‘소통과 화합’이었다. 취임사에서도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물을 건너는 공동운명체’라는 의미의 “동주공제(同舟共濟)”를 강조하면서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험한 파도를 헤쳐나가자고 역설했다. 이를 실천하듯 최강주 본부장은 취임 후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소통 행보에 힘을 쏟았다.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장의 어려움을 이해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운명공동체’라는 최강주 본부장의 말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았고 위기의 순간에 격랑의 파고를 넘는 힘이 되었다.

지난 2년을 돌아보면, 간단치 않은 여정이었다. 법무부의 수장인 장관의 조기 사퇴 속에서 격랑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뒤이어 숨 돌릴 틈도 없이 들이닥친 코로나19로 또 한번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세계 각국의 교도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으며, 수용자들의 폭동과 집단 탈옥 사건이 연이어 보도되면서 국내 교정기관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도 ‘교정시설은 사회방위의 최고 보루’라는 사명감을 잊지 않았다. 어느 때보다 크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24시간 비상근무체제 운영, 선별진료소 설치 등 발 빠른 대처와 철저한 방역으로 위기의 순간을 넘길 수 있었다. 동주공제의 심정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었으니 코로나19라는 고난과 풍랑 속에서도 교정시설은 흔들리지 않았고, 여전히 순항 중이다.

## 2 변화

**치열했던 2년의 성과**

과밀수용과 인력부족은 교정의 오랜 숙원 과제였다. 최강주 본부장은 시설을 증개축하고 가석방을 확대함으로써 과밀수용을 해결하는데 앞장섰으며, 국민참여 조직진단을 통해 소속기관 심리치료과 및 분류센터 신설 등에 필요한 인력증원을 이끌어냈다.

직원들의 정신건강 회복 및 증진을 위해 외부 전문가 상담, 긴급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신케어 등을 실시하였으며 근무복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능률을 향상시켰다.

심리치료 프로그램 과정 신설을 통해 성폭력사범 등 특정 범죄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벨트형 포승 등을 개발하여 수용자 인권 보호에 기여했다.

수용자와 가족이 보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형 가족접견실을 확대 설치하였으며, 범죄의 대물림을 차단하기 위해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가 법에 규정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수용자와 가족을 위한 포용적 정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2년이라는 짧은 재임기간 동안 교정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만 짚어보아도 그와 함께 동주공제했던 여정이 얼마나 숨 가쁘고 치열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 3 내일

**희망을 남기다**

급변하는 시대에도 교정이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면 중장기적 안목이 필요하다. 최강주 본부장은 재임 기간 중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밴드 등 차세대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스마트교정 시대의 밑그림을 그렸다. 퇴임사에서 “검사조사 시 호송방법 개선,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마트 교정시설 조성, 차세대 교정정보 시스템 구축 사업, 교정기관 대체복무제도 운영체계 마련 등 시작은 하였으나 아직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도 많아 아쉽고 미안한 마음이 남는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나 아쉬움과 달리 그가 남긴 중장기적 밑그림 덕분에 교정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꿈꾸게 만들었다. 숙제에는 도전정신 덕분에 필요한 법이다. 그가 늘 강조했듯이 이 고비를 잘 넘기고 나면 ‘희망의 내일’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최강주 본부장의 치열했던 여정은 여기서 마침표를 찍었지만 그가 남긴 동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제 후배들이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 더욱 혁신하고 발전하는 교정을 만들어 갈 차례이다.

글 허경미*

# 국제 인권법상 수용자 의료 처우 준칙 및 형집행법령 개정 방향

Ⅰ. **서론**
Ⅱ. **수용자 의료 처우 관련 일반적 논의**
Ⅲ. **국제 인권법의 수용자 의료 처우 준칙**
Ⅳ. 수용자 의료 처우 관련 형집행법령 개정방향
Ⅴ. 결론

*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접수일(2019. 12. 2.) 심사일(2019. 12. 18.) 수정일(2019. 12. 22.) 게재확정일(2019. 12. 26.)

■ 국문요약

교정당국은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으로부터 수용자 의료 처우의 문제를 개선할 것을 요구받는 등 관련 문제 해결은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특히 중증 질환, 자비 부담 외부 치료, AIDS/HIV 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한 의료 처우 실태는 더욱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제 인권법, 즉 유엔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 유엔 수용자 처우 기본원칙, 노인 수용자 및 만성 질환자 처우 규칙, 여성 차별 철폐 협약, 방콕 규칙 등에서 제시한 의료 처우 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형집행법령의 한계 및 그 개정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인권적 의료 처우의 제도 개선을 도모코자 하였다.

첫째, 형집행법상 의료의 장을 별도로 두어 의료 처우의 체계화를 이루어야 한다. 둘째, 중증 질환 수용자 의료 처우를 위한 교정시설 의료 환경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셋째, AIDS/HIV 보균 수용자에 대한 처우 규정의 명문화가 필요하다. 넷째, 수용자의 고령화 추세를 고려한 별도의 교정 처우 및 의료 처우 개선에 대한 교정당국의 인식, 시설 개선, 의료진 확보, 예산 확보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성인지적 관점의 여성 수용자 의료 처우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여성 의료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여섯째, 교정정신병원의 설립과 의료진 확보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일곱째, 교정시설 전문의 신분의 재검토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여덟째, 전반적인 의료 처우의 근거 규정을 상위법인 형집행법에 두어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아홉째, 교정본부를 교정청으로 승격하여 그 책임 하에 국제 인권법에 걸맞은 형집행법령을 개정하고 의료 처우 제도 등을 전격적으로 도입,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주제어 : 국제 인권법, 수용자 의료 처우, 중증 질환 수용자, 여성 수용자, 노인 수용자 의료 처우, 정신장애 수용자 의료 처우

## Ⅰ. 서론

최근 법무부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칭)을 개정하여 법무부장관의 교정 처우 5개년계획, 형사사법기관의 협의체 설립 및 운영, 적정한 교정 인력 확보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등 교정 처우 환경을 개선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수용자 의료 처우의 개선을 위한 규정으로는 임산부 수용자의 처우 개선(제52조)을 제외하고는 제도 개선이 더 필요해 보인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2016년에 전국의 교정시설 10개 수용자 1,057명을 대상으로 한 구금시설 건강권 실태조사에서 몸이 아픈 적 있다고 응답한 수용자 중 37.4%가 의무과 진료 방문이 어렵고, 야간 · 공휴일에 몸이 아파 의료진 면담을 신청했지만 면담 자체를 못했다는 경우가 68.2%에 달하는 등 의료 처우에 한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영수 외, 2016: 8–10).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환자는 2011년 1만 779명에서 2018년 1만 6,884명으로 56.6% 증가하였다. 그러나 2018년 전국 52개 구금시설의 의무관은 93명으로 정원보다 16명이 부족하여 환자 당 2분여를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1)]

1) 2017년 7월 13일 군산교도소에서 심근경색과 협심증을 앓던 수용자(62)가 쓰러졌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일이 있었고, 같은 교도소는 2018년 5월에 혈액암환자 수용자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출소 후 한 달 만에 사망했다며 유가족으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하였다(메디컬타임즈, 2018. 5. 16; 데일리메디, 2018. 9. 26).

이와 같이 열악한 의료 환경에서 일반 환자보다 상대적으로 중증 질환, 자비 부담 외부 치료, AIDS/HIV 보균, 노인, 여성 및 정신질환 수용자 등은 현행 교정시설의 의료체계상 더 차별적 지위에 처할 수 있다(허경미, 2018).

실제로 법무부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에서 외부 진료를 위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거부되어 사망한 수용자가 2013년 13명, 2014년 16명, 2015년 20명, 2016년 17명으로 나타났다(연합뉴스, 2017. 10. 16.; 주영수 외, 2016: 148–149).

한편, 유엔 고문방지위원회가 2018년 5월, 교정기관의 의료 처우 문제점을 지적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8년 8월, 법무부에 수용자 건강권 개선을 요구하였고, 법무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하였다(한겨레신문, 2019. 9. 16.; 중앙일보, 2018. 9. 7.; 국가인권위원회, 2018).

그러나 개정된 형집행법이나 법무부의 수용자 의료 처우 환경 개선안 등은 국제 인권법에 비추어볼 때 아직 좀 더 정비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증 질환, 자비 부담 외부 치료, AIDS/HIV 보균, 노인, 여성, 정신장애 수용자 등에 대해서는 국제 인권법이 별도의 의료 처우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상대적으로 차별적 지위에 처할 수 있는 중증 질환 수용자 등의 국제 인권법상 의료 처우 준칙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형집행법령의 개정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2)]

2)이 연구에서는 유엔 피구금자 최저기준 규칙, 유엔 수용자 처우 기본원칙, 노인 수용자 및 만성 질환자 처우 규칙, 여성 차별철폐 협약, 유엔 여성피구금자 규칙 등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시행 2019. 10. 24. 법률 제16345호, 2019. 4. 23.,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 2019. 10. 24. 대통령령 제30134호, 2019. 10. 22., 일부개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2019. 10. 24. 법무부령 제960호, 2019. 10. 22., 일부개정),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시행 2019. 4. 24 법무부예규 제1221호, 2019. 4. 24., 일부개정)을 비교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국제규범의 경우 비교대상이 아니더라도 폭넓게 유엔의 관련 규범을 소개하여 교정 의료 처우 정책개선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 Ⅱ. 수용자 의료 처우 관련 일반적 논의

### 1. 선행연구 검토

수용자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교정 처우의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연구도 최근 들어 활발해지고 있다.

외국인 수용자에 대한 국제 인권법상 처우 방안을 제시한 허경미의 연구(2017), 수용자 처우에 대한 각종 국제규범을 소개한 금용명의 연구(2016), 수형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교정 의사의 관점에서 연구한 이석배의 연구(2015), 지역사회 보건의료체계적 관점에서 구금시설 수용자의 의료 처우를 회복적 사법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제안한 최세진 외의 연구(2018), 교정시설 전반의 의료 처우 실태를 연구한 주영수 외 연구(2016) 등이 있다.

여성이나 노인 수용자의 인권적 처우에 대해서는 국제 인권법에 맞게 노인 수용자의 교정 처우 개선 방향을 제안한 허경미의 연구(2017), 여성 수용자의 인권 처우 방향을 모색한 허경미 연구(2018), 모혜수의 연구(2013)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정신장애 수용자 치료 및 처우에 관한 연구로 정신장애 범죄자 교정 처우를 위한 통합적인 법적 규정 마련의 필요성 등을 제안한 류은숙의 연구(2015), 정신장애 수용자들에 대한 사회 적응력 향상과 재범방지 처우 프로그램을 진단한 김명철 외의 연구(2015), 정신장애 수용자 의료제도 개선에 초점을 둔 경우로는 현행 치료감호처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미국의 치료사법법원의 도입을 제시한 성경숙의 연구(2010), 국제법 기준으로 정신장애 수용자 처우 프로그램 개선을 제안한 허경미의 연구(2017) 등이 있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자들이 제시한 교정시설의 다양한 의료 처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집행법령의 개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국제 인권법상 의료 처우 규정이 그 준거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출발하였다.

### 2. 중증 질환 등 수용자 의료 처우 실태

#### 1) 중증 질환 수용자

지난 2013년 이후 교정본부가 밝힌 수용자 환자 현황은 〈표 1〉과 같다. 그런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 질환을 4대 중증 질환으로 선정하고, 이 중증 질환자는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질병관

리본부, 2018).

〈표 1〉과 같이 중증 질환인 고혈압은 매우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당뇨 역시 2017년을 제외하고는 같은 추세이다. 고혈압과 당뇨를 합친 경우 2013년 54.7%, 2014년 52%, 2015년 51.7%, 2016년 54.1%, 2017년 56.6%, 2018년 59%에 달하는 등 매 년 전체 수용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인권적 의료 처우의 필요성과 의료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나아가 공식통계상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암환자를 포함할 경우 교정시설의 중증 질환자의 비중은 더 심각한 상태일 수 있다.

〈표 1〉 교정시설의 수용자 중 환자 현황(명, %)

| 구분 | 계 | 정신질환 | 혈액투석 | 간질 | 한센병 | 고혈압 | 당뇨 | 기타 |
|---|---|---|---|---|---|---|---|---|
| 2013 | 19,668 (100) | 2,607 (13.3) | 62 (0.3) | 254 (1.3) | 2 (0.0) | 7,115 (36.2) | 3,633 (18.5) | 5,995 (30.6) |
| 2014 | 22,971 (100) | 2,560 (11.0) | 62 (0.3) | 238 (1.0) | 1 (0.0) | 7,728 (34.0) | 4,167 (18.0) | 8,215 (35.7) |
| 2015 | 24,238 (100) | 2,880 (11.9) | 69 (0.3) | 227 (0.9) | 1 (0.0) | 8,050 (33.2) | 4,484 (18.5) | 8,527 (35.2) |
| 2016 | 24,226 (100) | 3,296 (13.6) | 81 (0.3) | 219 (0.9) | 2 (0.0) | 8,367 (34.5) | 4,741 (19.6) | 7,520 (31.1) |
| 2017 | 23,196 (100) | 3,379 (14.6) | 89 (0.3) | 226 (1.0) | 1 (0.0) | 8,387 (36.2) | 4,726 (20.4) | 6,388 (27.5) |
| 2018 | 24,199 (100) | 3,665 (15.1) | 90 (0.4) | 242 (1.0) | 1 (0.0) | 9,091 (37.6) | 5,179 (21.4) | 5,931 (24.5) |

자료: 교정본부, 2019 교정통계연보, 2019. 93. 재구성.

한편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 52개 교정시설의 의료 인력은 정원 중 의사 80%, 약사 85%, 간호 99% 정도를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사는 100%를 충원하였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남자 수용자가 대부분인 여주교도소를 포함한 10여 곳이 모두 산부인과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다(주영수 외, 2016: 148). 이밖에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가 2013년에 64명이었으나 점차 감소하다가 2016년 49명, 2017년 50명, 2018년 55명으로 증원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공중 보건의는 임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양한 영역에 걸친 질병을 가진 수백여 수용자를 홀로 진찰하는 어려움 등으로 교정시설 지원을 기피하고 있어 교정시설의 의료 인프라는 더욱 열악해질 수 밖에 없다(메디게이트뉴스, 2019. 8. 3). 이와 같은 교정 의료 환경에서 중증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등의 수

〈표 2〉 교정시설의 의료진 현황(정원, 명)

| 구분 | 계 | 의무 | 약무 | 간호 | 의료기사 | 공중보건의사 |
|---|---|---|---|---|---|---|
| 2013 | 227 (246) | 91 (101) | 9 (14) | 94 (98) | 33 (33) | 64 |
| 2014 | 230 (248) | 92 (102) | 10 (14) | 95 (99) | 33 (33) | 60 |
| 2015 | 229 (251) | 87 (103) | 11 (13) | 99 (102) | 32 (33) | 53 |
| 2016 | 230 (255) | 83 (104) | 11 (13) | 103 (105) | 33 (33) | 49 |
| 2017 | 244 (260) | 93 (109) | 13 (15) | 105 (105) | 33 (33) | 50 |
| 2018 | 302( 273) | 93 (116) | 11 (13) | 110 (111) | 33 (33) | 55 |

자료: 교정본부, 2019 교정통계연보, 2019, 99. 재구성.

용자 환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 2) 외부 진료의 자비 부담 치료 관련

주용수 외(2016)의 연구에서 수용자가 자비 부담을 해서라도 외부 진료를 받고 싶었지만 신청하지 못한 수용자는 23.6%이며, 외부 진료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경우는 17.0%이고, 이 가운데 19.2%는 교정시설 의사의 진찰 없이 거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병원 진료 신청 후 외부 병원에 진료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41.0일이었으며, 외부 병원 이송 시 동행한 교도관 수는 평균 4명이었다(주영수 외, 2016, 8–10).

이와 같은 현실은 2019년 10월 교정본부가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확인된다. 즉,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수용자 중 외부 병원 입원자는 1만 588명이었고, 이 가운데 1달 이상 입원자는 28명(0.26%)에 이었다. 입원 기간이 1~5일인 경우가 6945명(66%)으로 가장 많았으며, 6~10일(23%)이 그 뒤를 이었다(한겨레신문, 2019. 10. 20).

형집행법 제35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수용자에 대한 국가의 치료 의무를 명백히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제38조는 "소장은 수용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외부 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의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수용자의 자비 부담을 우선적인 허가 요건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결국 중증 질환 수용자의 경우에도 자비 부담을 하지 않고서는 법무부의 예산 범위 내에서만 외부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자비 부담 능력이 없는 경우 외부 진료 허가를 받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의미한다(주영수 외, 2016).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은 제54조(급여의 정지)에서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교도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제4호)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도록 하였고, 제60조(현역병 등에 대한 요양 급여비용 등의 지급)에서 법무부장관이 예탁금을 미리 공단에 예탁할 경우 그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다고 규정하였다. 건강보험예탁금은 2013년 약 86억원에서 2018년 약 167억 원으로 94% 정도 증가하였다(교정본부, 2019, 102).

수용자 1인당 의료비는 2013년에 303,445원에서 2018년 394,343원으로 30% 정도 증액되었다. 교정시설의 의료비는 2013년 약 145억 원에서 2018년 223억 원으로 54% 가량 증가하였다. 교정시설 의료비의 증가는 수용자의 고령화와 만성 질환자의 증가, 외부 진료 등의 증가로 인한 의료비 부담 등이 그 요인인 것으로 보이며, 동일한 이유로 교정시설 수용자 의료 처우 수요는 더 많아지고 외부 진료와 자비 부담 등의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3) AIDS/HIV 수용자

2019년 7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정시설에서 HIV 감염인을 격리 수용하는 건 인권침해"라며 이들을 분리 수용하지 말 것을 법무부에 권고하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일반 수용자들이 HIV 수용자와 함께 수용되는 것을 거부하고 폭행 등의 사고가 잦아 오히려 HIV 보균 수용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들의 분리 수용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조선일보, 2019. 8. 7).

교정본부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 제11조에 따라 AIDS/HIV 수용자를 관리하고 있으며, 정확한 인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형집행법은 AIDS/HIV 처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다만, 제35조(감염병 등에 관한 조치)에서 소장은 감염병이나 그 밖에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용자에 대하여 예방접종 · 격리수용 · 이송,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3. 노인 수용자 의료 처우 실태

통계청은 2017년 한국의 사회지표상 2017년 65세 이상 인구는 707만 6,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3.8%이며, 2030년 24.5%, 2040년 32.8%로 그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2010년 이후 인구 10만 명 당 65세 이상 사망자 중 가장 많은 원인은 암이며, 2016년의 경우에도 65세 이상 고령자의 사망원인 1위는 암으로 796.2명이 사망하였고, 심장 질환(357.7명), 뇌혈관 질환(286.9명) 순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17). 교정시설의 노인 수용자 역시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표 3〉과 같이 교정시설의 수형자는 60대 이상이 2013년 7.3%, 2014년 8.4%, 2015년 9.7%, 2016년 10.6%, 2017년 11.6%로 확연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법무연수원, 2019: 362).

〈표 3〉 교정시설의 연령대별 수형자 현황(명, %)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계 | 32,137 (100) | 33,444 (100) | 35,098 (100) | 36,479 (100) | 36,167 (100) |
| 20세 미만 | 241 (1.1) | 323 (0.9) | 309 (0.8) | 338 (0.9) | 293 (0.8) |
| 20대 | 4,693 (14.6) | 4,761 (12.2) | 4,853 (13.7) | 5,092 (13.9) | 5,046 (14.0) |
| 30대 | 7,677 (23.9) | 7,584 (22.7) | 7,678 (21.8) | 7,678 (21.0) | 7,543 (20.9) |
| 40대 | 9,714 (30.2) | 9,986 (29.9) | 10,310 (29.5) | 10,275 (28.2) | 9,712 (26.9) |
| 50대 | 7,362 (22.9) | 7,989 (23.9) | 8,624 (24.5) | 9,255 (25.4) | 9,330 (25.8) |
| 60대 이상 | 2,350 (7.3) | 2,801 (8.4) | 3,324 (9.7) | 3,841 (10.6) | 4,243 (11.6) |

자료: 법무연수원, 2018년 범죄백서, 2019, 362. 재구성.

법무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교정시설에서 병사한 경우는 142명이다. 자살자는 31명으로 남성 수용자가 90% 이상 이며, 43% 이상은 60대 이상의 고령자로 나타났다(세계일보, 2019. 8. 24).

〈표 4〉 교정시설의 병사 및 자살 현황(명)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26 | 28 | 28 | 29 | 22 | 40 |
| 병사 | 19 | 24 | 24 | 22 | 20 | 33 |
| 자살 | 7 | 4 | 4 | 7 | 2 | 7 |

자료: 법무부, 2019. 행정정보공개자료, 재구성.

한편 WHO는 교정시설의 수용자는 환경, 위생 등의 여건이 일반 사회보다 열악하므로 일반인들보다 노인 증후군이 더 빨리 진행된다고 지적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4: 165). 노인 증후군(Geriatric Syndromes)이란 실제 생물학적 고령화가 진행되기 이전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 신체 정신적으로 노화 증세를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스파크만(2017)과 윌리암즈(2013)는 노인 수용자가 젊은 수용자보다 자살률 및 규범 위반율이 높은 이유를 노인의 인지능력 저하나 노인 증후군의 후유증적 차원에서 진단하여야 하고 노인 수용자에 대한 비구금 처우를 주장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고령화는 생애발달상 노인 증후군을 촉진시키고 이는 노인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 시스템의 전면적 정비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또한 노인 전용 교도소를 설치하여 노인성 질환 의료 처우 인프라를 확충할 근거법의 마련 역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법무연수원, 2019, 706).

### 4. 여성 수용자 의료 처우 실태

여성 수용자는 〈표 5〉에서와 같이 2013년에 비해 2018년에는 40% 정도 증가하였다. 그러나 청주여자교도소 이외의 여성 전용 교도소 신설을 추진하지 않아 여성 평균 수용률은 130.2%, 상위 10개 기관의 수용률은 평균 160.3%에 달하고 있어 과밀수용 문제와 여성 니즈를 반영치 못한 의료 처우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허경미, 2018; 법무연수원, 2019: 337.; 중앙일보, 2018. 1. 14).

〈표 5〉 교정시설의 여성 수용자 현황(명)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2,923 | 3,091 | 3,519 | 3,906 | 3,773 | 3,897 |
| 수형자 | 1,612 | 1,783 | 1,976 | 2,198 | 2,262 | 2,339 |
| 미결 수용자 | 1,311 | 1,308 | 1,543 | 1,708 | 1,511 | 1,558 |

자료: 교정본부, 2019 교정통계연보, 2019. 61. 재구성.

〈표 6〉 교정시설의 임산부 및 양육대동 수용자 현황(명)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
| 계 | 23 | 16 | 20 | 23 | 30 | 20 |
| 임산부 | 13 | 7 | 9 | 12 | 20 | 19 |
| 양육유아 | 10 | 9 | 11 | 11 | 10 | 10 |

자료: 교정본부, 2019 교정통계연보, 2019. 79. 재구성.

여성 수용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경우에는 모성보호 및 건강유지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진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하고, 여성 수용자가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 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양육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 수용자 전용시설의 부족과 의료진의 문제로 이와 같은 의료 처우나 배려에 한계가 있다.
〈표 6〉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임산부 및 양육대동 수용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 5. 정신 질환 수용자 의료 처우 실태

정신 장애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빈번해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매우 높아지고 있다. 특히 2016년 이른바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이나, 2017년 3월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2019년 안인득 사건 등은 범인이 모두 정신분열증(조현병)을 앓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신장애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의 중요성 역시 더욱 부각되었다(이투데이, 2019. 10. 19).
교정본부는 2016년 11월부터 기존 교정심리치료센터와 정신보건센터를 통합하여 10여 개 교정시설에 심리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로 성폭력 사범 및 정신 질환 수용자, 중독 사범을 대상으로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있다(법무연수원, 2019, 391). 그러나 실제로는 정신과 전문의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여 일선에서는 정신의학 분야의 전문지식이 없는 교도관이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서울신문, 2019. 10. 29).
〈표 7〉에서와 같이 교정시설의 정신장애 수용자는 매년 증가하여 2013년 2,607명에서 2018년 3,665명으로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교정시설의 정신장애 수용자 현황(명, %)

| 구분 | 계 | 치매 | 행동장애 | 정신분열 | 우울 충동 | 불안장애 | 수면장애 | 인격장애 | 정신발육지체 | 정신발달장애 | 정서장애 | 기타 |
|---|---|---|---|---|---|---|---|---|---|---|---|---|
| 2013 | 2,607 (100) | 19 (0.7) | 78 (3.0) | 401 (15.4) | 917 (35.2) | 425 (16.3) | 490 (18.8) | 54(2.1) | 15(0.6) | 3 (0.1) | 8 (0.3) | 197 (7.6) |
| 2014 | 2,560 (100) | 21 (0.8) | 80 (3.1) | 347 (13.6) | 856 (33.4) | 398 (15.5) | 568 (22.2) | 73 (2.9) | 31 (1.2) | 8 (0.3) | 9 (0.4) | 169 (6.6) |
| 2015 | 2,880 (100) | 32 (1.1) | 185 (6.4) | 400 (13.9) | 925 (32.1) | 435 (15.1) | 632 (22.0) | 64 (2.2) | 18 (0.6) | 4 (0.1) | 8 (0.3) | 177 (6.2) |
| 2016 | 3,296 (100) | 33 (1.0) | 136 (4.1) | 365 (11.1) | 1,044 (31.7) | 563 (17.1) | 788 (23.9) | 71 (2.1) | 14 (0.4) | 9 (0.3) | 27 (0.8) | 246 (7.5) |
| 2017 | 3,379 (100) | 31 (0.9) | 193 (5.7) | 329 (9.7) | 1,131 (33.5) | 472 (13.9) | 963 (28.5) | 66 (1.9) | 18 (0.5) | 2 (0.1) | 15 (0.4) | 159 (4.7) |
| 2018 | 3,665 (100) | 27 (0.7) | 146 (4.0) | 416 (11.3) | 1,146 (31.3) | 556 (15.2) | 1,032 (28.2) | 50 (1.4) | 18 (0.5) | 4 (0.1) | 27 (0.7) | 243 (6.6) |

자료: 교정본부, 2019 교정통계연보, 2019. 97. 재구성.



# Ⅲ. 국제 인권법의 수용자 의료 처우 준칙

유엔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수용자 인권 규범은 그 자체로 강제성은 없지만 회원국은 성실하게 자국법에 관련 규정을 담아 교정인권을 실천하게 되며, 이는 다양한 처우 프로그램으로 나타난다(허경미 2017; 최영신 2015; 허경미 2017; 교정본부 2012).

### 1. 수용자 관련 국제 인권법

**1) 유엔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

유엔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United Nations 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1955: SMRs 1955)은 유엔에서 1955년에 채택되어 1957년에 1차 개정 규칙(663 C(24))을, 1977년 5월에 2차 개정 규칙(2076(62))을 승인하였다. 이어 2015년 12월에 3차 개정 규칙을 채택하여 만델라 규약(Nelson Mandela Rules)이라고 칭한다. 유엔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은 2개장 10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UN, Nelson Mandela Rules).

**2) 유엔 수용자 처우 기본 원칙**

유엔 수용자 처우 기본 원칙(United Nations Basic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1990: A/RES/45/111)은 1990년 12월 14일 총회결의 45/111에 의해 채택 및 선포되었다. 이 기본 원칙은 모두 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UN, Basic Princip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3)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4/35, 사전심리 및 교정시설에서의 HIV/AIDS 확산 방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2004/35, 사전 심리 및 교정시설에서의 HIV/AIDS 확산 방지,(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Resolution 2004/35, Combating the spread of HIV/AIDS in criminal justice pre-trial and correctional facilities)는 2004년 7월 21일 제47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은 모두 9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UN, Combating the spread of HIV/AIDS in criminal justice pre-trial and correctional facilities).

### 2. 국제 인권법상 중증 질환 수용자 의료 처우

유엔 피구금자 최저 기준 규칙 제22조 제1항은 모든 교정시설은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료 요원을 한 명 이상 배치하고, 국가의 일반 보건 체계 및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며, 모든 교정시설은 의료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용자에 대한 의료적 관찰과 보고의무 등을 규정하였다. 제22조 제2항에서 전문의가 필요한 경우 외부기관으로 이송할 것과 내부치료의 경우에도 외부 진료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중증장애 수용자에 대한 의료 처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Atabay & Atabay, 2009).
제25조는 제1항에서 교정시설의 의료진은 질병을 앓고 있는 수용자에 대해 치료와 관찰, 상담할 것과 제2항에서는 의료 담당관은 매일 수용자의 건강 상태 및 감염 여부 등에 대하여 교정시설의 장에게 보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유엔 수용자 처우 기본 원칙은 수용자의 의료 처우에 대해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수용자는 그들의 법적 상황에 따라 차별 없이 자국에서 제공하는 의료적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결의안 2004/3은 제2조에서는 회원국들에게 "적절한 경우, 국내 법령에 따라 에이즈 보균자를 구금 처우의 대안을 마련하고, 구금 중에는 조기 석방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규정하였다. 즉, HIV/AIDS의 보균자에 대한 형사사법 단계에서의 치료 기회를 부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구금 처우 및 구금 중에도 조기 석방 후 보호관찰 등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2020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지난 6월 8일부터 25일까지 전국 17개 시 · 도에서 개최된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전국 교정기관 수형자 109명이 참가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용접, 가구, 냉동기술 등 20개 직종에서 금상 22명, 은상 20명, 동상 17명, 우수상 12명 등 총 71명이 입상하였으며, 이 중에는 무기수 21명도 포함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입상자에게는 소정의 상금과 함께 2020년 9월에 개최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이 부여된다.

##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 개최

지난 6월 19일 전국 교정기관장 영상회의가 정부과천청사 5동 스마트워크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교정시설 내 수용자 인권신장 방안'과 '정신질환자 의료처우 등 수용관리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는 최강주 교정본부장을 비롯한 전국 교정기관장 62명이 참석하여 교도관 인권 감수성 강화를 위한 법무연수원 교육 과정 신설, 정신질환 수용자 관리 매뉴얼 운영 등 당면 과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였다.

##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 발족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들이 겪어야 했던 인권 침해로부터 이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수용자의 원만한 사회복귀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정환경을 구축하고자 지난 6월 교정본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발족했다. 팀장 산하 4개 분과(법 · 제도 개선팀, 정책 · 실무 연구팀, 대외협력팀, 전문가 자문팀)로 구성된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는 수용자 자녀 인권 관련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아동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법 ·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2020년도 교정통계연보 발간

교정본부는 지난 6월 19일 2020년도 교정통계연보를 발간하여 전국 교정기관 및 유관 단체 등에 배포하였다. '교정조직과 교정시설', '수용 현황', '수용자 처우', '민간인의 교정참여'의 4편으로 구성된 교정통계연보는 교정정책 수립 및 교정 관련 연구에 필요한 통계를 현행화하고 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매년 제작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도 누구나 법무부 및 교정본부 홈페이지에서 교정통계연보를 확인할 수 있다.

## 2020년도 법무부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지난 7월 2일 교정민원 안내 채팅봇 '교정본부 민원톡' 이 2020년도 법무부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민원인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어플(카카오톡)을 통해 교정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인공지능 기반의 채팅봇 '교정본부 민원톡'은 다양한 분야의 민원 질의에 상세한 답변을 제공한다.

한편, '교정본부 민원톡'을 포함한 법무부 민원서비스 우수사례 3건은 행안부가 주관하는 '국민생활밀접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추천되어 심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유경열

###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 업무 보고회 개최

서울지방교정청은 6월 8일 차세대 지능형 교정정보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무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추진단 13명과 사업단 8명이 참석해 작업공정 진행상의 문제를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신규 교정기관에도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시 확장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구치소** / 교도 김상혁

### 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 업무협약 체결

서울구치소는 6월 17일 (사)한국청소년폭력방지협회와 불우수용자 미성년 자녀 지원 및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경책 100권과 원예화분 1,000개를 기증받았다. 두 기관은 유기적이고 긴밀한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장학금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안양교도소** / 교위 박준석

###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안양교도소는 6월 4일 안양소방서 귀인119안전센터 소방대원들과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교도소 인근 모락산 화재 발생을 가정해 초동조치, 자위 소방대 초기 진압 및 수용자 대피, 안양소방서와의 합동 화재진화 등으로 이뤄졌다. 이번 훈련으로 자위 소방대의 자체 대응역량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강화할 수 있었다.

**수원구치소** / 교위 배창현

### 코로나19 긴급 대책반 회의 개최

수원구치소는 6월 24일 지역사회에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비상대책 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부인 및 신입수용자 문진, 시설 내 정기소독, 다중 이용 밀폐시설 출입자제, 마스크 착용, 취약장소 내 대화 자제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지역사회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서울동부구치소는 6월 8일 신규 직원 2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은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임용 신고, 선서 및 꽃다발 전달 순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서울동부구치소는 새내기 교도관으로서 출발선에 선 직원들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통해 건실한 교도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인천구치소** / 교도 이남웅

###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인천구치소는 6월 8일 신규 직원 4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에서 신규 직원들은 공무원 선서를 통해 청렴한 공무원으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수용자 교정교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김광찬

### 교정협의회 수용자 부채 기증

서울남부구치소는 6월 18일 교정협의회로부터 부채 2,200개를 기증받아 수용자들에게 지급했다. 이번 기증은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도움을 주고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이는 등 건전한 수용생활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이재희

### 지역사회 장학금 전달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6월 22일 어려운 환경에서도 성실히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지역 내 학교 재학생 6명에게 장학금과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2011년부터 전 직원의 참여로 매달 일정 금액을 모금해 분기마다 인근 6개 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의정부교도소** / 교사 최재성

### 꽃이 있는 의정부교도소 만들기 실시

의정부교도소는 6월 1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직장 분위기를 되살리기 위해 '꽃이 있는 의정부교도소 만들기'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8명의 직원이 참여해 민원인 주차장 주변 화단에 사파니아 등의 꽃을 심었다. 의정부교도소는 아름다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고 밝고 깨끗한 지역 친화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여주교도소** / 교사 하승환

###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여주교도소는 6월 3일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이번 헌혈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혈액수급에 도움을 주고자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직원이 참여해 뜻깊게 마무리 될 수 있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 반부패 · 청렴활동 홍보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2020 반부패 · 청렴정책 자체 추진계획'에 따라 6월 11일 전 직원 및 민원인을 대상으로 반부패 · 청렴활동 홍보를 실시했다. 홍보 활동의 일환으로 민원실, 청사 입구 등 교정시설 곳곳에 공익신고 배너와 포스터를 설치했다. 서울남부교도소는 앞으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청렴표어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반부패 · 청렴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춘천교도소** / 교도 이건희

###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춘천교도소는 6월 8일 신규 직원 5명에 대한 임용식을 개최했다. 임용식에는 소장을 비롯한 각 부서장이 참석해 임명장과 꽃다발을 수여하고 교도관으로서의 첫발을 내딛는 신규 직원들을 응원했다. 이날 임용된 신규 직원들은 5일간 교육을 받고 보안과에 배치되어 수용관리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 강원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수상

원주교도소는 6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교도소 내 건축시공 실습장에서 열린 '2020년도 강원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조적 부문에 수형자 5명을 출전시켜 금상 1개, 은상 1개, 동상 1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대회에 참가한 수형자들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문기능인이 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강릉교도소** / 교사 정충현

### 유관기관 합동 소방훈련 실시

강릉교도소는 6월 9일 강릉소방서와 함께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여 산불 발생 등에 대비한 합동 진화 체계를 공고히 했다. 이날 김일환 소장은 "실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을 가정하여 훈련을 반복하는 것만이 조기 진화를 위한 화재 대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월교도소** / 교도 정욱수

### 직원 퇴임식 개최

영월교도소는 6월 25일 직원 3명에 대한 퇴임식을 개최했다. 소장실에서 간소하게 진행된 이날 퇴임식에서 교정관 김주원, 교감 이용우, 교감 김희열은 교정행정 발전과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위 윤우리

### 외부 정문 새롭게 단장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6월 19일 외부 정문의 새 단장 작업을 마무리했다. 올해 4월부터 시작해 외부 정문 현판 교체, 주차 차단기 설치 등을 완료했다. 외부 정문의 새 단장 이후 평택지소에 방문한 민원인들은 "멋지게 바뀐 정문 덕분에 평택지소를 쉽게 찾을 수 있었다"고 변화를 반겼다.

**강원북부교도소** / 교위 김지명

### 건강 달리기 대회 참가

강원북부교도소는 6월 20일 개최된 '코로나 극복 속초시 건강 달리기 대회'에 참가했다. 개청 준비를 하고 있는 강원북부교도소는 이번 대회 참가를 통해 속초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교정기관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었다.

**소망교도소** / 정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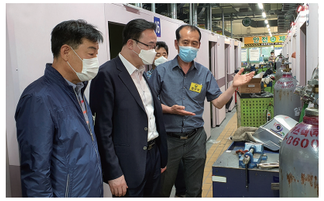
### 개소 10주년 기념 스토리 공모전 개최

소망교도소는 개소 10주년 기념 스토리 공모전을 5월 15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했다. '돌아보는 10년, 기대하는 100년'이라는 슬로건 하에 개최된 이번 공모전에는 직원, 자원봉사자, 수용자들이 모두 참여했다. 최종 선정된 9편의 작품은 '소망교도소 개소 10주년 기념 백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이지훈

### 2020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 점검 실시



대구지방교정청은 6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2020년도 지방기능경기대회'가 개최되는 총 13개소의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경식 대구지방교정청장은 구미 금오공고 용접 대회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술향상을 통한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힘쓰는 모습이 아름답다"며 계호 직원 및 경기 진행 직원들을 격려했다.

**대구교도소** / 교사 서정호

### 교정협의회 수용자 생수 기증

대구교도소는 6월 12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7만 3,800병을 기증받았다. 교정협의회 김준호 회장은 "얼린 한 병의 생수가 무더운 여름을 나는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김승만 소장은 "이번 생수 기증은 수용자들의 건강한 여름나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부산구치소** / 교사 최병철

### 교정협의회 수용자 생수 기증

부산구치소는 6월 11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1만 5,000병을 기증받았다. 교정협의회 김진영 회장은 "수용자들이 무더위에 지치지 않고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으며 유태오 소장은 "수용자들이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도 진용혁

### 전 직원 아이스크림 지급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6월 22일 무기계약 근로자를 포함한 전 직원에게 아이스크림을 지급했다. 이날 행사는 현재까지 직원 및 수용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국가적 위기 사태를 슬기롭게 이겨내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하절기 근무의욕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됐다.

**창원교도소** / 교도 한기상

### 교정협의회 수용자 생수 기증

창원교도소는 6월 24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1만 병을 기증받았다. 창원교도소 교정협의회는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매년 생수 등을 지원하고 있다. 기증받은 생수는 냉동해 혹서기 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오광운 소장은 "전달품들 속에 담긴 나눔의 손길은 수용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부산교도소** / 교위 박종철

### 수용자 문예작품 공모 시상식 개최

부산교도소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교화행사의 일환으로 수용자 문예작품을 공모 받아 6월 11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총 8명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으며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기관장 표창 및 영치금 10만 원이 전달됐다. 부산교도소 교정협의회 하준섭 회장은 "여건이 된다면 하반기에는 독후감 발표회를 개최하여 책을 통한 수용자들의 긍정적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포항교도소** / 교도 김병수

### 교정협의회 수용자 생수 기증

포항교도소는 6월 18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2만 병을 기증받았다. 정창헌 소장은 "무더위로 인해 무기력해지기 쉬운 여름철, 시원한 생수는 수용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헌

### 경남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수상

진주교도소는 6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열린 '2020년 경남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종합 10위의 성적을 거뒀다. 이번 대회에는 수용자 11명이 참가했으며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2명, 우수상 2명 등 총 6명이 입상했다. 도재덕 소장은 "향후에도 건전한 근로정신을 함양시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시키기 위해 직업훈련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구치소** / 교도 김경민

### 교정협의회 정기총회 개최

대구구치소는 6월 12일 대회의실에서 교정위원 27명과 직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교정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19년도 교정협의회 감사 · 결산, 2020년도 교정협의회 임원 선출 및 예산 · 사업계획 수립, 청장 및 소장 표창장 수여 등이 실시됐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하우현

### 경북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수상

경북직업훈련교도소는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2020년도 경북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용자 8명을 참가시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 우수상 1개를 수상했다. 금메달 수상자 2명은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자격을 얻었으며 남은 기간 동안 기능연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 경북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수상

안동교도소 목공동호회 회원 교위 박명근, 교사 정두교, 교사 윤진환은 6월 8일부터 11일까지 열린 '2020년도 경북 지방기능경기대회' 실내장식 부문에 참가하여 각각 은메달, 동메달, 우수상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동희 소장은 "최선을 다한 직원들의 노력이 좋은 결실을 얻었다"며 수상을 축하했다.

**경북북부제2교도소** / 교사 심상헌

### 6급 승진자 임용식 개최

경북북부제2교도소는 6월 8일 6급 승진자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에서는 승진자 6명에게 임용장과 꽃다발, 기념촬영 사진으로 제작한 앨범 등을 증정하며 그간의 노고를 치하하고 승진을 축하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조덕래

###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동참

김천소년교도소는 6월 11일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에 동참했다. 양동석 소장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헌신 중인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우리 김천소년교도소 직원들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이영진

### 코로나19 대응 관련 직원 격려행사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6월 25일 전 직원에게 햄버거와 음료수를 지급했다. 이번 행사는 시설 내 코로나19의 확산 방지 및 예방에 힘쓰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직원들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사태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입을 모았다.

**울산구치소** / 교사 황정목

### 교정협의회 수용자 생수 기증

울산구치소는 6월 19일 울산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5,000병을 기증받았다. 기증받은 생수는 얼려서 하절기 폭염 시 수용자들에게 지급할 예정이며, 무더위 극복에 청량제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주교도소** / 교위 조경동

### 2020년도 상반기 합동방호 진단 실시

경주교도소는 6월 10일 제122연대 1대대의 협조로 경주경찰서와 함께 '2020년도 상반기 합동방호 진단'을 실시했다. 중앙통제실, 지하 벙커, 참호 등 보안 시설물을 점검하고, 브리핑하는 과정을 통해 자체 방호능력 향상을 위한 협조체계를 강화했다.

**통영구치소** / 교사 박지원

### 전통시장 단체 방문 실시

통영구치소는 6월 11일 고성 5일장을 단체로 방문하여 점심식사 및 물품구매 등을 실시했다. 노영길 소장은 "이번 방문이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매달 전통시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밀양구치소** / 교사 최상훈

### 사랑의 헌혈운동 실시

밀양구치소는 6월 1일 청사 주차장에서 '사랑의 헌혈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의 협조를 받아 이동 헌혈 버스에서 진행됐으며, 코로나19 장기화로 헌혈인구가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혈액 수급 안정화에 기여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주교도소** / 교위 이상빈

### 6급 승진자 임용식 개최

상주교도소는 6월 8일 6급 승진자 임용식을 가졌다. 이날 승진한 교감 김덕호 등 6명은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충실히 업무를 수행하는 등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박해양

### 국립 대전 현충원 참배 실시

대전지방교정청은 6월 1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 대전 현충원을 참배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천수 청장을 비롯한 18명의 직원이 참석해 나라를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희생정신과 공훈을 기렸다. 또한 순직 경비교도 묘역을 참배해 교정공무원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했다.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 화재 도주 통합훈련 실시

대전교도소는 6월 16일 재난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를 틈타 수용자가 도주하는 상황을 가정한 도주 대비 훈련도 병행했다. 대전교도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통합훈련을 실시하고 직원들이 훈련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청주교도소** / 교사 이승기

### 충북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수상

청주교도소는 6월 8일부터 6월 11일까지 4일간 실시된 2020년도 충북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수형자 6명을 참가시켜 금상을 비롯해 전원 입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김응분 소장은 "앞으로도 내실 있는 직업훈련으로 우수 기능인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안교도소** / 교도 전인호

### 승진자 임용식 개최

천안교도소는 6월 8일 직원들의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용식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승진자들만 참여한 채 생활 속 거리 두기 예방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다. 승진자들은 높아진 계급만큼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교정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청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 음악동호회실 리모델링 실시

청주여자교도소는 6월 1일 음악동호인 연습실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직원에 개방했다. 이번 공사로 개인 연습실 2개소를 신규 설치했으며 방음 시공도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나면 이곳에서 동호회원들의 활기찬 합주가 펼쳐질 예정이다. 윤순풍 소장은 "직장 내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여 활기찬 공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공주교도소** / 교위 이희명

### 6급 승진자 임용식 개최

공주교도소는 6월 8일 6급 교감 승진자 11명에 대해 승진 임용식을 개최했다. 승진자들은 축하와 격려 속에서 기쁜 마음으로 교감 계급장을 어깨에 달았다. 임용식에서 승진자들은 한층 무거워진 책임감을 느끼며 공주교도소와 교정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충주구치소** / 교위 김인호

### 6·25 참전기념비 참배

충주구치소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4일 한국전쟁 당시 동량면 출신 참전 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한국전쟁 6 · 25 참전기념비'를 참배했다. 이날 참석한 직원들은 "골육상쟁의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호국안보 의식을 보다 확고히 다지는 시간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성교도소** / 교도 조경환

### 반부패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표어 공모전 개최

홍성교도소는 6월 12일부터 3주간에 걸쳐 2020년 반부패 ·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표어 공모전을 개최했다. 청탁금지 · 청렴 · 공익신고자 보호 등을 주제로 총 9명이 출품했으며 행복한 직장 만들기 위원회에서 최우수작 1점을 가려 기관장 표창을 시상했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감 노호성

### 직원 탈의실 및 휴게실 리모델링 실시

천안개방교도소는 6월 1일 오랜 숙원 사업이던 청사 내 휴게실과 직원 탈의실 리모델링을 마쳤다. 직원 탈의실이 숙직실 외부에 있어 사생활 침해가 우려됨에 따라 숙직실 내부를 탈의실로 구조 변경했다. 또한 숙직실 외부를 휴게실로 리모델링해 직원들을 위한 편안한 휴식공간을 마련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김승인

### 승진 및 신규 직원 임용식 개최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6월 8일 3명의 교감 승진 및 신규 직원 임용식을 개최하고 꽃다발 및 계급장을 수여했다. 이날 임용식에서 유철흠 소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당부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도 박지우

### 신규 직원 환영식 개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6월 8일 신규 직원 2명에 대해 환영식을 개최했다. 이날 환영식에서 신규 직원들은 선배들과 인사를 나눈 뒤 공직자로서 자긍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안동일

### 호국보훈의 달 '보비스 체험 행사' 참여

광주지방교정청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2일 국가 유공자 및 보훈 가족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고, 따뜻한 보훈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보비스 체험 행사'에 참여했다. 광주지방보훈청 이동보훈복지팀과 함께 광주 지역 내 보훈 가족 중 재가복지 대상자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위로 · 격려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광주교도소** / 교도 심우민

### 외곽 경계로 정비작업 완공

광주교도소는 6월 1일 주변 경계로 및 교통로 재정비 공사를 마쳤다. 평소 외곽으로 통행하는 길목이 험난하여 산불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이 어려웠으나, 급경사 지역에 계단식 발판과 로프 난간을 설치하고 길목을 다듬어 신속 대응이 가능해졌다. 또한 주변 미관이 향상되고 등산로가 확보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도 얻었다.

**전주교도소** / 교위 박승훈

### 청렴 캠페인 및 봉사활동 실시

전주교도소는 6월 8일 청렴 캠페인과 교도소 주변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지역 주민과 방문객들에게 공직사회의 청렴 의지를 알리고 부정부패 없는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주변 환경정화 활동으로 깨끗한 지역 사회 만들기를 실천했다.

**순천교도소** / 교사 이승현

### 전남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수상

순천교도소는 6월 8일 개최된 '2020년도 전남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실내장식, 미장 종목에서 금 · 은 · 동메달 및 우수상을 휩쓰는 쾌거를 거뒀다. 금메달을 수상한 수용자들에게는 전국기능경기대회 전 참가 자격이 주어졌다. 순천교도소는 수용자의 기능연마 및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목포교도소** / 교사 김수인

### 전남 지방기능경기대회 참가 및 수상

목포교도소는 6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순천교도소에서 열린 '2020년 전남 지방기능경기대회'에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서 가구 종목에 참가한 훈련생들은 금상 1개, 은상 1개, 동상 1개를 각각 수상했다.

**군산교도소** / 교도 김재민

### 지역사회 장학금 전달

군산교도소 직원봉사단체인 옥정골보라미봉사단은 6월 22일 인근 지역 옥구초등학교에 상반기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장학금은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해 교도관들이 작은 정성을 모아 마련한 것이다. 옥구초등학교 주광순 교장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학생들이 교도관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황승민

### 음악이 흐르는 교도소 조성

제주교도소는 6월 3일 외부 정문에서 접견실, 청사 내부 등 곳곳에 20개의 스피커를 설치하고 음악 서비스를 시작함으로써 '음악이 흐르는 교도소'로 탈바꿈했다. 클래식, 팝, 7080가요 등 240여 곡을 선정해 시간대에 맞게 재생함으로써 무겁고 경직된 교정기관 이미지를 탈피하고 한결 편안하고 밝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방문 민원인들도 "음악을 들으니 마음이 밝아지는 것 같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흥교도소** / 교위 오창용

### 광주지방교정청장 정책 현장 방문

신경우 광주지방교정청장은 6월 11일 장흥교도소를 방문해 주요 정책 이행 실태를 점검했다. 기관 업무 현황을 보고 받은 후, 코로나19 대응 및 수용자 인권 보호, 하절기 수용관리 대비 실태 등을 점검하고 수용질서 확립에 매진하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했다.

**해남교도소** / 교사 이상문

### 교정협의회 수용자 생수 기증

해남교도소는 6월 10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2만 병을 기증받았다. 전달받은 생수는 폭염이 예상되는 이번 하절기 동안 수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평소 수용자들의 안정적인 수용생활과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정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정읍교도소** / 교도 박승현

### 접견 시스템 장애 모의훈련 실시

정읍교도소는 6월 9일 접견 시스템(보라미 시스템) 장애발생 대비 접견업무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업무의 단절 · 마비 등 예상되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비상 시 접견업무 담당자의 대처능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0년 7월

# 모범공무원을 소개합니다

수원구치소 교위 **김민주**

현재 민원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민원 정책을 숙지하고 달라진 접견 절차와 관련 규정을 정확하고 친절하게 안내하여 민원인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여성 수용동에서 근무할 때는 여성 수용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고 심리적 안정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주었다. 또한 수용자 처우 경험, 다양한 종류의 민원 상담 과정에서 쌓아온 업무 처리 노하우를 적극적으로 공유함으로써 후배들이 업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돕고 있다.

상주교도소 교위 **변현수**

보안과 미지정수용동 근무 시 수용 질서 확립을 위해 원칙에 입각한 수용 생활 지도를 실시하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수용자에 대해선 상담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찾게 하는 등 교정 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또한 수용동 내 이동문고를 확대하고 도서관을 활성화시켜 영치금이 부족한 수용자에게 도서 구독 기회를 제공하고 자비구매 도서의 입고 횟수를 늘림으로써 수용자의 독서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교위 **이동기**

보안계 조사 · 고충 업무 담당자로서 수용 시설 내 발생한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교정행정 발전에 기여했다. 조사 · 징벌 수용자에 대한 정기적인 상담으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처우에 적극 반영하여 시설 내에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또한 신원 조회 시스템으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신입 수용자에 대해 즉시 관할 경찰서에 확인을 요청하는 등 교정 사고 예방에 기여했다.

군산교도소 교위 **김판영**

2019년도 민원 만족도 조사에서 군산교도소가 민원 업무 유공 법무부장관 표창을 받는 데 기여했다. 특히 2019년 10월경 한 수용자의 부모님이 방문해 "어떻게 해야 하냐"며 당황해 했을 때 차분하고 친절한 태도로 안내해 부모님을 안심시켰다. 이후 부모님이 교정본부 홈페이지에 "이 정도로 친절하신 것을 보니 안심할 수 있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처럼 대민 친절도 및 교정행정 이미지 제고 등에 기여했다.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

## 김나연 교사를 칭찬합니다

제가 칭찬하고 싶은 직원은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서 근무하는 김나연 교사입니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첫 발령을 받아 출중한 능력을 마음껏 발휘했던 분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고생만 하다 가신 것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교도소에 임상심리사로 들어와 사회복귀과에서 인성교육의 첫 토대를 닦았고 심리치료팀으로 이동해서는 아동 성폭력 교육과 내부강사 등을 수행했습니다. 수용자의 상담에 앞장서며 항상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바쁜 업무와 힘든 상황 속에서도 늘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납니다.

이렇듯 사회복귀과와 심리치료팀에서 종횡무진 하면서 그 실력을 인정받아 지금은 대전지방교정청 분류센터에서 업무를 수행 중입니다. 그곳에서도 역시 특유의 발랄함과 에너지 넘치는 모습으로 동료와 선후배들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밝은 모습으로 주위를 밝혀주는 매력적인 그녀를 칭찬하고 싶습니다.

**칭찬해 주신 분** : 청주여자교도소 교위 임유진

청주교도소

## 김민석 교위를 칭찬합니다

김민석 교위는 항상 밝은 미소로 상대방에게 먼저 다가서는 성품을 가졌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근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 동안 경험한 근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줄 정도로 따뜻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휴게 시간에 신규 직원과 함께 근무하며 가르치는 열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동료 직원들이 근무하는 곳에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달려가 함께 상황을 처리할 만큼 솔선수범하는 적극성도 뛰어납니다. 무엇보다 저에게는 아주 든든한 동료입니다.

동료 직원들보다 일찍 출근해서 직원 탈의실을 4년째 한결같이 쓸고 닦았습니다. 늘 깨끗하기만 한 탈의실의 우렁각시가 김민석 교위였다는 사실을 알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가끔 물청소를 할 때면 물기가 마르는 시간까지 생각해서 더 일찍 출근한다는 말에 같은 동료로서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동료를 생각하는 큰마음을 가진 청주교도소의 속이 꽉 찬 남자 김민석 교위를 칭찬합니다.

**칭찬해 주신 분** : 청주교도소 교위 김경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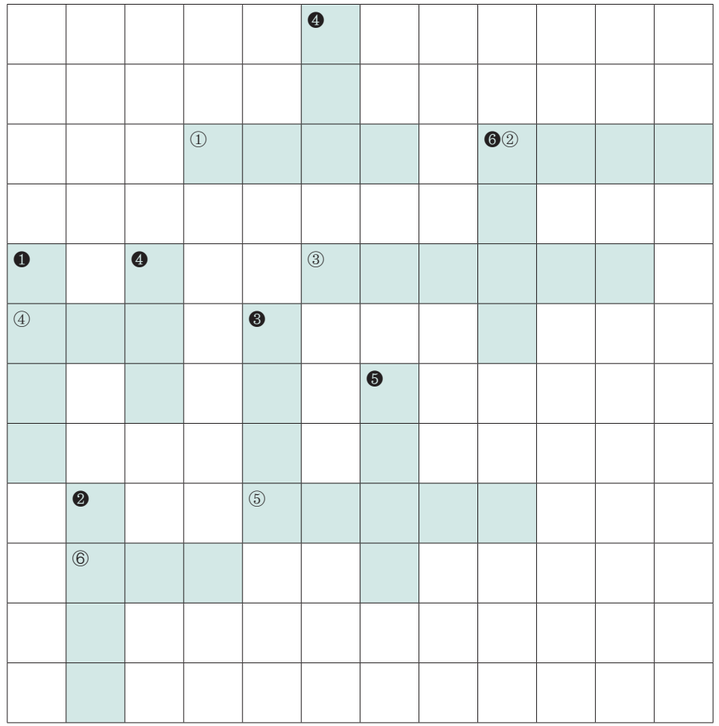
월간 〈교정〉이 동료 간에 칭찬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칭찬합시다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내 주변에 꼭 칭찬을 하고 싶은 동료가 있다면 월간 〈교정〉을 통해 소개해 주세요. 참여해주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칭찬의 주인공에게는 특별한 하루를 선물해 드립니다.

- 사연은 이메일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로 보내주세요.
- QR코드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가로세로 퀴즈

가로세로 퀴즈를 푼 후 사진을 찍어 이메일 (correct2015@naver.com, yjw1219@korea.kr)로 보내주세요. 선정된 분에게는 '소원을 말해봐' 참여기회 또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가로퀴즈

① 여러 가지 일에 능숙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또는 한 가지 일에 정통하지 못하고 온갖 일에 조금씩 손대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②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뛴다는 뜻으로, 여기저기 사방으로 분주하게 돌아다님을 이르는 말.

③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뜻으로, 사람이 재물에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음을 이르는 말.

④ 미국 힙합문화에서 '부나 귀중품을 과시하다'란 의미로 쓰이며 최근에는 '돈 자랑하다'는 뜻의 신조어로 부상.

⑤ 몸속에 숨어든 악마를 내쫓기 위한 사제들의 사투를 그린 퇴마영화. 배우 강동원이 사제복을 입고 나온 것만으로도 큰 화제가 된 영화.

⑥ 과학적으로 해명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사건이나 악령 · 악마 등을 주 소재로 다루는 장르의 영화. OOO영화.

### 세로퀴즈

❶ 이 세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나와 외모가 흡사한 사람. 독일어로 '이중으로 돌아다니는 자'라는 뜻에서 유래된 말.

❷ 맹자는 인간이 이성적으로 선한 존재라 가르치며 인간의 본성을 측은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과 더불어 이것을 꼽았다. 불의를 부끄러워하고 미워하는 마음이라는 뜻.

❸ 입에는 꿀이 있고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다는 뜻. 말로는 친한 체하나 속으로는 나쁜 생각을 품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❹ 교정본부의 남자 캐릭터 이름. 수용자 교정교화를 직장 생활의 보람으로 삼고 헌신 · 노력하고 있는 교정공무원의 이미지를 담고 있다.

❺ 시작은 거창했지만 결국엔 보잘것없이 끝나는 것을 이르는 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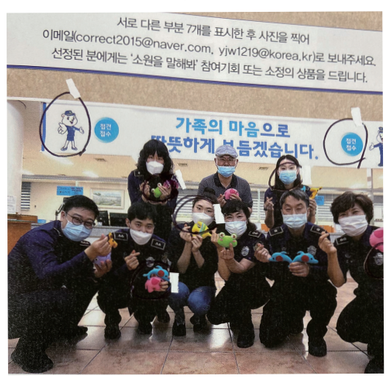
❻ 같은 배를 타고 함께 강을 건넌다는 뜻으로 함께 어려움을 헤쳐 나간다는 것을 비유하는 사자성어.

# 축하합니다

6월호 다른 그림 찾기 이벤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분을 선정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전교도소 교위 김성수

의정부교도소 공업서기보 김수형




수원구치소 간호서기 이준영